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 및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연 정

논문개요

본 연구는 결혼 적령기인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이미지와 디자인 요소, 장식적 요소 등을 파악하고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와 연관성을 조사하여 웨딩드레스 샵과 고객들의 웨딩드레스 경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과 웨딩드레스 샵의 사이즈 체계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서울에 위치한 웨딩드레스 샵과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 여성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웨딩드레스 샵은 총 20군데를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방식과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고객은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여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SPSS 13.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χ^2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웨딩드레스 샵에서 생산방식은 우리나라 웨딩 문화의 고유 특성상 구매형식과 대여형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여형식 중에서도 샘플대여의 형식이 맞춤대여의 형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샵의 피팅 모델은 연령과 체형이 결혼적령기 실제 고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 대한 연령과 체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웨딩드레스 치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웨딩드레스 고객 사이즈 측정 시 상반신 사이즈 측정 항목은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어깨너비, 등길이의 순으로 가장 많이 측정하였다.

2. 웨딩드레스 샵에서 웨딩드레스를 생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반신 기본 치수는 가슴 둘레의 평균이 86cm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의 평균은 66cm, 등길이는 38cm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기본 허리치수를 중심으로 뒷중심에 여유분을 두고 가감하여 가봉을 통해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웨딩드레스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기본드레스 치수의 사이즈 조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웨딩드레스의 규격화된 사이즈 체계를 제안하였다. 가장 작은 사이즈는 ‘W44’, 보통 사이즈는 ‘W55’, 큰 사이즈는 ‘W66’으로 분류하였다. ‘W55’는 웨딩드레스 샵의 상반신 기본치수인 가슴둘레의 평균치수 86cm로 설정하고 허리둘레는 평균치수 66cm로 설정했다. ‘W55’를 기준으로 가슴둘레는 6cm의 등간을, 허리둘레는 5cm의 등간을 두어 ‘W44’는 가슴둘레 80cm와 허리둘레 61cm로 제안하였으며 ‘W66’는 가슴둘레 92cm와 허리둘레 71cm로 제안하여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를 나타냈다. 또한 뒷중심 시접의 여유량은 대여 형식이라는 웨딩드레스 특성상 좀 더 다양한 사이즈의 수용폭과 완전한 지퍼가봉을 위해 일정량이 꼭 필요하여 좌, 우 각 5cm로 제안하였다.

3. 웨딩드레스 샵에게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어울리는 디자인 유형을 조사한 결과 S 사이즈(Small size)고객에게 어울리는 실루엣은 앰파이어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Large size) 고객에게 어울리는 실루엣은 프린세스 실루엣, A 라인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다. 넥라인의 경우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유형은 오프 더 숄더 넥라인, 하이 넥라인, 탱크탑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유형은 브이 넥라인, 탱크탑 순이었다. 소재는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것은 레이스, 공단, 벨벳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소재는 공단, 레이스, 실크 순으로 나타났다. 슬리브의 경우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유형은 퍼프 슬리브, 튜립 슬리브, 슬리브리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

리는 유형은 슬리브리스, 벨 슬리브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샵에게 S 사이즈 고객은 성인 여성복의 44사이즈 고객으로, L 사이즈 고객은 성인 여성복의 66사이즈 고객으로 조사하여 앞에서 제안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인 가장 작은 사이즈 'W44' 에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큰 사이즈인 'W66' 에는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4. 결혼 적령기 여성의 웨딩드레스의 구매 방법으로는 맞춤대여 방법을 선호하였고 가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 하였다. 웨딩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은 심미성을 중요시하였고 디자인 유형은 전체적인 실루엣 유형을 중요시 하였다. 웨딩드레스 디자인 중 실루엣 유형에 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크리놀린 실루엣과 프린세스 실루엣을 선호하였고 넥라인은 오프 더 숄더 넥라인과 탱크탑을 가장 선호하였다. 슬리브는 캡 슬리브와 슬리브리스를 선호하였고 소재는 실크와 레이스를 선호하였다. 고객의 평상시 착용하는 성인 여성복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실루엣을 분석해 본 결과 S 사이즈를 착용하는 응답자는 A 라인 실루엣과 크리놀린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고, L 사이즈를 착용하는 응답자는 크리놀린 실루엣과 프린세스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다. 넥라인은 전체적으로 오프 더 숄더 넥라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두 번째는 탱크탑을 선호하였다. 슬리브의 경우 S 사이즈 응답자는 슬리브리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L 사이즈 응답자는 캡 슬리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전체적으로 실크를 선호하였으며 두 번째는 레이스를 선호하였다. 앞에서 제안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인 가장 작은 사이즈 'W44' 에 S 사이즈 응답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을, 큰 사이즈인 'W66' 에는 L 사이즈 응답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를 제안하고 웨딩드레스 샵에서 고객 사이즈 별 어울리는 디자인 유형과 실제 고객의 사이즈에 따라 이들이 선호하는 웨딩드

레스 디자인 유형을 조사하여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에 따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웨딩드레스 관련 샵에서는 웨딩드레스 제작 시 실제 고객의 체형에 가깝도록 전개하며 체계적인 사이즈 구분으로부터 고객의 안락감과 실제 고객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특성과, 디자인 유형을 파악하여 웨딩드레스 생산 및 디자인 등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웨딩드레스의 이론적 고찰	4
2. 성인 여성복의 치수 체계	50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57
1. 조사 대상자	58
2. 측정 항목	58
3. 분석 방법	59
IV. 결과 및 논의	60
1.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 및 디자인 유형	60
2. 고객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71
V. 결론 및 제언	8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디자인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49
<표 2> ISO에 의한 드롭값과 분포율 (1999년도)	51
<표 3> 현재(KS K 0051:2004) 성인 여성복 체형 구분	52
<표 4> 체형의 분포율	53
<표 5> KS 성인여성복 기본 신체 부위별 신체 치수	54
<표 6> KS 성인 여성복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2004)	56
<표 7> 연구 절차	57
<표 8> 대여 형식 중 생산 방식의 비율	61
<표 9> 피팅 모델의 선정 시 선호도	62
<표 10> 각 부위의 평균값	63
<표 11> 고객 상반신 사이즈 측정항목	64
<표 12> 상반신 기본 치수 범위	66
<표 13>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치수 분포 범위	68
<표 14> 웨딩드레스 상반신 사이즈 체계 분류	68
<표 15>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에 따른 디자인 유형	70
<표 16> 일반적 특성 분석	72
<표 17> 이상적인 웨딩드레스 구매 방법 및 가격	73
<표 18> 웨딩드레스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과 선호 디자인	74
<표 19>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유형별 선호도	76
<표 20>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실루엣 선호 유형	77
<표 21>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네크라인 선호 유형	79
<표 22>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슬리브 선호 유형	80
<표 23>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소재 선호 유형	81
<표 24>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따른 고객의 디자인 선호도 분석	82
<표 25>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따른 고객의 디자인 유형	83

그림 목 차

<그림 1> 프린세스 실루엣	7
<그림 2> 프린세스 실루엣	7
<그림 3> 볼 가운 실루엣	9
<그림 4> 볼 가운 실루엣	9
<그림 5> 머메이드 실루엣	9
<그림 6> 머메이드 실루엣	9
<그림 7> 버슬 실루엣	10
<그림 8> 버슬 실루엣	10
<그림 9> A 라인 실루엣	12
<그림 10> A 라인 실루엣	12
<그림 11> 엠파이어 실루엣	12
<그림 12> 엠파이어 실루엣	12
<그림 13> 라운드 넥라인	14
<그림 14> 라운드 넥라인	14
<그림 15> 보트 넥라인	15
<그림 16> 보트 넥라인	15
<그림 17> 오프 더 숄더 넥라인	15
<그림 18> 오프 더 숄더 넥라인	15
<그림 19> 브이 넥라인	16
<그림 20> 브이 넥라인	16
<그림 21> 스퀘어 넥라인	17
<그림 22> 스퀘어 넥라인	17
<그림 23> 스위트 하트 넥라인	17
<그림 24> 스위트 하트 넥라인	17
<그림 25> 하이 넥라인	18

<그림 26> 하이 넥라인	18
<그림 27> 캐미솔 넥라인	18
<그림 28> 캐미솔 넥라인	18
<그림 29> 홀터넥라인	19
<그림 30> 홀터넥라인	19
<그림 31> 슬리브리스	21
<그림 32> 슬리브리스	21
<그림 33> 셸 인 슬리브	20
<그림 34> 셸 인 슬리브	20
<그림 35> 캡 슬리브	22
<그림 36> 캡 슬리브	22
<그림 37> 벨 슬리브	22
<그림 38> 튜립 슬리브	22
<그림 39> 퍼프 슬리브	23
<그림 40> 벌룬 슬리브	23
<그림 41>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23
<그림 42> 라메	26
<그림 43> 산통실크	26
<그림 44> 오간자	27
<그림 45> 툴	27
<그림 46> 라인 레이스	28
<그림 47> 리버 레이스	28
<그림 48> 코드 레이스	28
<그림 49> 헴 레이스	28
<그림 50> 블러셔	31
<그림 51> 엘보 령스	31
<그림 52> 핑거 팁	31

<그림 53> 채플	32
<그림 54> 캐더럴	32
<그림 55> 브러쉬	34
<그림 56> 채플	34
<그림 57> 캐더럴	34
<그림 58> 모나크	34
<그림 59> S-커브 실루엣과 앰파이어 라인이 혼용된 드레스	35
<그림 60> 미나렛 튜닉과 호블 스커트	36
<그림 61> 1920년대 웨딩드레스	37
<그림 62> 1920년대 웨딩드레스	37
<그림 63> 1937년 결혼식그림	38
<그림 64> 1940년대 결혼식 사진	39
<그림 65> 전쟁 중의 결혼식 사진	39
<그림 66>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40
<그림 67>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결혼식	41
<그림 68>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식	41
<그림 69> 1960년대 웨딩드레스	42
<그림 70> 1960년대 웨딩드레스	42
<그림 71> 1971년 결혼식	43
<그림 72> 1985년 8월 마돈나 손펜의 결혼식	44
<그림 73> 다이애나비의 웨딩드레스	44
<그림 74> 1999년 결혼식	45
<그림 75> 1996년 케롤라인 벅셋 결혼식	45
<그림 76> 2001년 제니퍼 로페즈 결혼식	46
<그림 77> 2004년 베라 왕 드레스	46
<그림 78> 2006년 캐롤리나헤레라 웨딩드레스	47
<그림 79> 2007년 웨딩드레스	47

I. 서론

웨딩드레스는 우리나라에서 신부의상이라고 불리며 결혼식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드레스의 총칭이다.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드레스를 선택할 때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초월해 비교적 호사스럽게 그 시대의 패션에 따라 각기 어울리는 디자인의 드레스로 선택되어진다.¹⁾

웨딩드레스는 시대에 따라 변천되는 다양한 실루엣이 패션 산업과 함께 발달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패션 산업은 특정기준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각기 다른 취향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상품이 갖추어져 왔지만 웨딩드레스는 패션 상품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입된 시기에 비하여 그 업계의 발달 과정은 다른 의류 업종보다 뒤떨어져 있다.²⁾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수요에 있어 한계가 있고 특별한 상황을 위한 예복으로 분류되어 제작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출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을 사이즈별로 여러 벌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기본 허리치수를 중심으로 몇 인치씩 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수공적인 사이즈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디자인에 따라 그 사이즈 여유가 달라지며 길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웨딩드레스 장식의 특성상 구두의 굽 높기로 조절 가능한 예상치를 염두에 두거나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³⁾ 더욱이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본 드레스 치수의 사이즈 조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하기에 각

-
- 1) 박진희, “성인 여성의 체형 특성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p.1.
 - 2) 이성수, 오면재, 서경희, ‘웨딩드레스 선정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1999, Vol 23, No.4, pp.593~600.
 - 3) 박희영,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5), p.2.

웨딩드레스 샵에 따라 사이즈 차이에 의한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샵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사이즈 체계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의류산업은 단순히 판매자의 입장을 벗어나 고객을 분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마케팅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마케팅 개념의 목적은 고객을 잘 알고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스스로 팔리는 상품이 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를 실시하여 표적시장을 선정한 후 고객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⁴⁾ 웨딩드레스 치수 및 맞춤새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샵에 대해 고객들이 일관된 맞춤새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통된 치수를 설정함으로써 고객에게 맞는 치수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의복의 맞춤새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패션 경향 등의 영향을 받는다.⁵⁾ 이러한 고객의 치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체형,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장식적 요소 등의 고객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웨딩드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역사적 측면, 디자인 측면, 마케팅 측면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웨딩드레스의 사이즈에 관해서 웨딩드레스 샵과 실제 고객의 웨딩드레스 착용과 관련된 구성측면에서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 적령기인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이미지와 디자인 요소, 장식적 요소 등을 파악하고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웨딩드레스 샵과 고객들의 웨딩드레스 경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

4) 고지현, “미씨브랜드의 사이즈에 대한 커버울 및 착의 만족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p.3.

5) Brown, p., Rice, J., 「Ready to wear Appareal Analysis-2nd edi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98), p.6.

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과 웨딩드레스 샵의 사이즈 체계 설정에 도움이 되며 웨딩드레스 샵에게 고객의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샵의 특성에 맞는 웨딩드레스의 사이즈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웨딩드레스의 이론적 고찰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을 거행할 때 신부가 입는 서양식 혼례복으로 웨딩드레스의 구성 요소는 흰색의 웨딩드레스, 베일(면사포), 꽃과 기타 장신구로 구성되었다. 이들 구성 요소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시대별로 각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로마 시대의 흰색은 축하의 상징 18세기 후반에는 부의 상징, 19세기 초부터는 순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지금에 이르렀다.⁶⁾

웨딩드레스의 유래는 고대 로마에서 결혼식 때 신부의 예복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플라메움(Flanneum)이라는 불꽃 빛깔의 노란색 베일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50년 동안 흰색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논쟁을 걸쳐 1813년에 흰색 웨딩가운과 베일을 입은 사진이 프랑스의 유명한 잡지에 실린 후에 그 스타일이 대중화 되었고 1820년대에 흰색의 웨딩드레스로 정착되어졌으며 전에는 대부분의 신부들은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1840년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앨버트 왕자와의 결혼식에서 왕실 전통인 은빛 드레스 대신 흰색 드레스에 오렌지 꽃으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후 영국의 전통으로 정착되어졌다.⁷⁾ 미국에서는 19세기 동안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으나 20세기부터 결혼식 날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보편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⁸⁾

6)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1983), p.5.

7) 김수경, 「패션사전」 (서울 : 디자인신문사, 1991), p.166.

8) 이은정,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과 감성이미지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5), p.4.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로 실루엣, 넥라인, 슬리브, 소재로 분류하고 장식적 요소로 베일과 트레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

(1)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

① 실루엣(Silhouette)

디자인에서 실루엣은 의복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의복을 착용한 상태의 표면선과 외계와의 접촉면을 나타내는 면의 외형선으로 전체적으로 윤곽선 또는 입체적인 아웃라인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⁹⁾

웨딩드레스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의복의 실루엣은 당대 시대정신과 예술양식 등 사회적인 제현상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총합적인 조형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복식의 역사를 논할 때 실루엣의 특징을 살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행의 역사는 일면 실루엣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루엣은 유행이나 스타일의 대명사처럼 되고 있다.¹⁰⁾

고대의 웨딩드레스는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드레이프형이었다.¹¹⁾ 중세 초기에는 종교의 영향으로 인체를 무시하였으므로 웨딩드레스 역시 가슴과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고 인체를 은폐한 박스형이었고, 중기이후에는 차츰 신체의 구조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의복은 전체적으로 길고 흐르는 듯한 내츄럴 슬림 라인(Silm Line) 실루엣이나 A 라인(A Line)의 실루엣을 보여 주었다. 근세에는 현세적인 미의식으로 17세기 후기로 가

9)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웨딩드레스 제작 및 실무」(서울 : 학술정보, 2004), p.35.

10)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패션디자인」(서울 : 수학사, 2006), p.76.

11) 문윤경,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8.

면서 점점 형식과 걸치장에만 열중하며 천박한 양상이 초래되어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버슬 실루엣과 크리놀린 실루엣이 웨딩드레스에서도 나타났다. 근대 초기 프랑스 혁명 이후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존재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변화되어 결혼의 본질적 의도가 받아들여짐으로써 교회결혼의 엄숙하고 딱딱함이 제거되고 의상 그 자체의 미적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지금의 웨딩드레스의 기본적인 스타일의 하나인 엠파이어 실루엣이 형성되었다.¹²⁾ 그리고 귀족적 분위기를 동경한 나머지 로코코 양식이 부활되어 크리놀린 실루엣이 재등장하여 버슬 실루엣과 S 라인 실루엣으로 인체를 구속하기 시작하였다.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으로는 프린세스 실루엣(Princess Silhouette), 볼 가운 실루엣(Ball Gown Silhouette), 머메이드 실루엣(Mermaid Silhouette), 버슬 실루엣(Bustle silhouette), A 라인 실루엣(A Line Silhouette), 엠파이어 실루엣(Empire Silhouette)등 종류가 다양하다.¹³⁾

웨딩드레스 실루엣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린세스 실루엣(그림 1, 2)은 19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왕후 알렉산드라가 황태자비시절에 즐겨 착용한 스타일에서 유래한다. 1860년경 프랑스에서 유제니 황후를 위한 모닝 드레스로 소개된 이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유행하였다. 그 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다시 유행하여 지금까지 널리 착용되는 실루엣의 하나이다.¹⁴⁾ 프린세스 실루엣은 어깨 또는 진동 둘레에서부터 치마 밑자락까지 세로로 절개선을 넣어서 다트 분량을 조절하여 상반신은 꼭 맞고 스커트는 여유가 있도록 만든 실루엣이다.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동시에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여 밑자락을 넓게 한 스타일이다. A 라인 실루엣과 다른 스타일로 분류되는 것은 A 라인 실루엣은 수평의 재봉선으로 허리를 나누는데 반

12) Ibid., p.38.

13) 박진희, op. cit., p.18.

14)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해 프린세스 실루엣은 위에서 밑으로 온전하게 떨어지는 스타일로서 드레스를 수직의 패널로 나누기 때문이다.¹⁵⁾

프린세스 실루엣은 심플함과 모던함을 잘 표현 해 주는 현대 웨딩드레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인기 있는 스타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¹⁶⁾ 우아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주며 장식의 사용에 따라 심플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분위기가 변화되는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또 두 개의 수직선으로 키를 커보이게 하여 날씬 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¹⁷⁾ 대부분의 체형에 어울리며 넓은 엉덩이와 처진 체형을 감출 수 있다. 긴 허리에 비해 다리가 짧은 체형은 높은 허리까지 올라오는 스커트와 플레어를 통해 몸매를 균형 잡히게 보여줄 수 있다.¹⁸⁾



<그림 1> 프린세스 실루엣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49)



<그림 2> 프린세스 실루엣
(웨딩 21, 2007. 5)

15)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London : Pavilion, 2005), p.34.

16) 박정은, “현대 웨딩드레스의 유행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1), p.44.

17) 박진희, op. cit., p.18.

18) Delamore, Philip., op. cit., p.34.

볼 가운 실루엣(그림 3, 4)은 상체가 인체에 꼭 맞으며 허리부분에 셔링이나 박스 플리츠가 들어가 종 모양으로 둥글고 넓게 퍼지도록 하는 실루엣이다.¹⁹⁾ 디자인에 따라 자연스러운 허리라인, 약간 내려간 허리라인 등으로 나뉘는데 망사가 여러 겹 들어간 볼 가운은 발레리나 같은 느낌을 준다.²⁰⁾ 볼 가운 실루엣은 몸에 맞는 보디스(bodice)와 스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원피스 스타일이며, 상의와 스커트가 분리된 투피스 스타일의 볼 가운 실루엣도 있다. 스커트는 보통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길이이다.²¹⁾

볼 가운 실루엣은 가장 전통적인 드레스의 형태²²⁾이며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키가 크고 날씬하면서 넓은 어깨의 체형에는 보디스에 끈이 없는 스타일이 어울린다. 또한 키에 비해 상체가 왜소한 체형이나 많은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끈이 달리거나 소매가 있으면서 혹은 목 위까지 올라오는 형태의 드레스가 어울린다. 허리를 강조함으로써 가슴을 풍만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높은 굽의 구두와 머리를 묶어 올림으로써 날씬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도 있다.²³⁾

머메이드 실루엣(그림 5, 6)은 상체에서 무릎길이까지 길고 꼭 맞으며 무릎에서 밑단까지 플레어나 개더 등을 장식하여 인어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는 실루엣이다.²⁴⁾ 실제로 비스듬하게 커트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그와 같은 효과를 주는데 이는 드레스 안에 비스듬한 재봉선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머메이드 실루엣은 인어처럼 유연하고 볼륨감 있는 느낌을 주며 키는 작아도 날씬한 체형에 어울린다.²⁵⁾

19)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웨딩드레스 제작 및 실무」(서울 : 학술정보, 2004) p.39.

20) 이경진, 「A Wedding Dresscollection」(서울 : 유로디자인, 2006), p.23.

21) Delamore, Philip., op. cit., p.14.

22) 박정은, op. cit., p.42.

23) Delamore, Philip., op. cit., p.15.

24)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8.

25) Delamore, Philip., op. cit., p.70.



<그림 3> 볼 가운 실루엣
(웨딩21, 2005. 8)



<그림 4> 볼 가운 실루엣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24)



<그림 5> 머메이드 실루엣
(더 웨딩, 2007. 4)



<그림 6> 머메이드 실루엣
(더 웨딩, 2005. 6)

버슬 실루엣(그림 7, 8)은 스커트부분에 버슬이라는 패드를 넣어 엉덩이 부분을 과장되게 부풀리는 실루엣이다. 버슬은 엉덩이나 허리의 등 쪽에서 스커트를 부풀게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으로 17세기 말에 등장했으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버슬이라는 말이 이런 허리대개를 뜻하게 된 것은 1830년경부터였다. 19세기 초기의 것은 고래수염이나 철사·말총 등을 넣은 딱딱한 천 등으로 부풀게 한 일종의 페티코트였는데, 후기에는 독립용구가 고안되어 쿠션 형식으로 만든 것, 철사로 엮어서 틀 모양을 한 것, 천으로 주름을 잡아서 만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페티코트에 달거나 가는 벨트로 허리에 동여매기도 하였다. 이러한 버슬의 외형을 버슬 실루엣이라 한다.²⁶⁾ 스커트 앞면은 스트레이트나 혹은 개더, 플레어의 돛형을 이루는 형태이며, 버슬이 강조된 뒷면은 화려한 트레인을 달아서 장식성을 높였다. 버슬 실루엣은 엉덩이가 강조되어 허리부분이 더욱 가늘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²⁷⁾



<그림 7> 버슬 실루엣
(웨딩 21, 2005. 11)



<그림 8> 버슬 실루엣
(마이웨딩, 2006. 1)

26) 신상옥, 「서양복식사」(서울 : 수확사, 2002), p.35.

27)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8.

A 라인 실루엣(그림 9, 10)은 ‘A’ 자 모양으로 위쪽이 작고, 옷 아래쪽을 향하여 넓게 퍼진 실루엣이다. 어깨는 좁고 가슴이 강조되지 않으며 허리선이 높으며 윗부분을 되도록 작게 보이기 위하여, 칼라가 없거나 작은 것을 달고, 소매가 어깨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스커트에는 주름이 없으며 폭이 그리 넓지 않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퍼져 있고 벨트선은 ‘A’ 자의 가로획을 나타내는 것처럼 단다. 전체적으로 굴곡이 없는 스타일이다.²⁸⁾

A 라인 실루엣은 가장 기본이 되는 드레스 라인으로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부드럽고, 풍성함, 안정감과 볼륨감이 있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어울릴 수 있으며 체형의 결점을 감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가 작은 사람은 A 라인 실루엣 뒷모습에 버슬 트레인으로 포인트를 주면 귀여운 느낌과 함께 밋밋해 보이는 느낌을 커버할 수 있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준다. 뚱뚱한 사람은 라인마다 파이핑을 넣으면 A라인의 윤곽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²⁹⁾ 엠파이어 실루엣과 같이 A 라인 실루엣은 작은 체형을 길어 보이게 해준다.

엠파이어 실루엣(그림 11, 12)은 전반적으로 사각형의 외관을 지닌 스타일로 다트가 없이 가슴, 허리, 엉덩이가 강조되지 않은 직선이면서 장식선이 배제된 실루엣이다. 가슴 바로 밑까지 올라오는 허리라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름을 잡아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하여 길어 보이는 실루엣을 연출한다. 짧고 둥근 트레인을 뒤에 달기도 하는데 높은 허리에서부터 바닥까지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버슬과 비슷한 작은 패드로 드레스를 몸과 분리시켜준다.³⁰⁾

고전적인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나 아방가르드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등장하는 엠파이어 실루엣은 대부분의 체형에 적합하며 높이 올라온 허리라인은 몸을 길

28)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29) 이경진, op. cit., p.10.

30) Delamore, Philip., op. cit., p.54.

어보이게 한다. 또한 큰 가슴을 작아 보이게 해주고 자연스러운 임부복을 가능하게도 해준다.³¹⁾



<그림 9> A 라인 실루엣
(마이웨딩, 2006. 2)



<그림 10> A 라인 실루엣
(마이웨딩, 2006. 4)



<그림 11> 앰파이어 실루엣
(라스포사웨딩, 2007. 4)



<그림 12> 앰파이어 실루엣
(웨딩 21, 2006. 2)

31) Ibid., p.55.

② 네크라인(Neckline)

네크라인은 얼굴과 몸의 중계 역할을 하는 곳으로 목은 얼굴과 가장 가까운 위치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굴곡이 심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머리와 어깨가 교차되는 곳이므로 착의의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개인들의 경우를 보면 목에 많은 장신구를 걸어서 장식하고 있고, 현대인들도 장신(裝身)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최대의 포인트로 잡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권력이나 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목 부분을 강조해 장식하기도 했다. 네크라인의 모양은 얼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얼굴의 모양에 따라 네크라인의 모양을 선택하는 게 좋다.³²⁾

중세 초기까지의 네크라인은 결혼식에 종교성을 강조하였으므로 목을 노출하지 않고 감쌌으나, 근세 이후에는 러프(ruff)칼라가 선보였고, 근대 말기에는 크리놀린 스타일이 부활되면서 하이 네크라인이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네크라인이 웨딩드레스의 디자인과 얼굴형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다.³³⁾ 드레스의 실루엣과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에 있어서 네크라인은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네크라인은 얼굴의 틀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며 착용자의 체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³⁴⁾

웨딩드레스의 네크라인으로는 라운드 네크라인(Round Neckline), 보트 네크라인(Boat Neckline),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Off the Shoulder Neckline), 브이 네크라인(V Neckline), 스퀘어 네크라인(Square Neckline),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Sweet Heart Neckline), 하이 네크라인(High Neckline), 캐미솔 네크라인(Camisole Neckline), 할터 네크라인(Halter Neckline) 등 종류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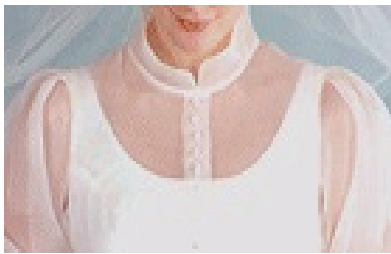
네크라인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op. cit.*,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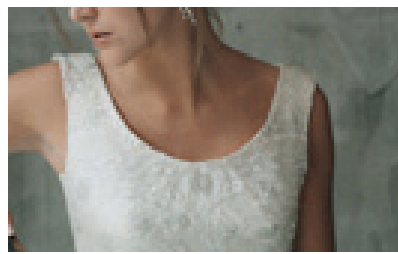
33) 문윤경, *op. cit.*, p.39.

34) Delamore, Philip,, *op. cit.* p.142.

라운드 넥라인(그림 13, 14)은 둥그런 모양의 넥라인으로 웨딩드레스에서 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정숙한 분위기가 나타나며 얌전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준다. 새틴처럼 투명한 소재보다는 비치는 소재에 응용되는 경우가 많다.³⁵⁾ 창조적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모던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라인이며 각 진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지만 둥근 얼굴형을 제외하고는 어느 얼굴형에나 무난하다.³⁶⁾



<그림 13> 라운드 넥라인
(더 웨딩, 2007. 5)



<그림 14> 라운드 넥라인
(웨딩 21, 2005. 6)

보트 넥라인(그림 15, 16)은 보트의 선창같이 약간 둥글고 가로로 넓게 파진 넥라인이다.³⁷⁾ 쇄골을 스쳐가면서 어깨 끝에서 만나는 라인으로써, 민소매의 심플한 웨딩드레스에 긴 장갑과 어울리며, 작고 평평한 가슴 체형에 이상적이지만 넥라인이 쉽게 왜곡될 수 있는 큰 가슴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목이 짧고 두 겹거나 얼굴이 둥근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³⁸⁾

35)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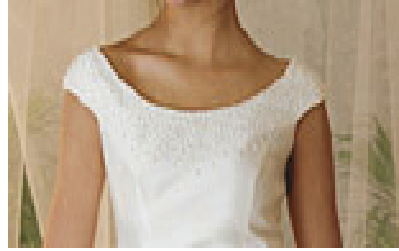
36)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Wedding Coordination」 (서울 : 청구문화사, 2006), p.19.

37)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op. cit., p.102.

38)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19.



<그림 15> 보트 네크라인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49)



<그림 16> 보트 네크라인
(마이웨딩, 2005. 10)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그림 17, 18)은 어깨에서 멀리 떨어진 네크라인으로, 어깨 끝이 드러나며 바스트 라인 가까이까지 깊게 판 네크라인이다.³⁹⁾ 시각적 확대 효과와 목과 쇄골을 드러내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웨딩드레스에서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은 쇄골과 어깨뼈가 드러나 매우 여성적이며 섹시하게 보인다. 대부분의 체형에 어울리며 얼굴이 길고 턱이 뾰족한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앞부분에 스위트 하트 모양이 덧붙여질 경우 둥글거나 각이 진 얼굴을 가림하게 보이도록 해준다.⁴⁰⁾



<그림 17>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
(더 웨딩, 2007. 4)



<그림 18>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
(마이웨딩, 2006. 2)

39)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op. cit., p.103.

40)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19.

브이 넥라인(그림 19, 20)은 V자 모양으로 된 넥라인으로 웨딩드레스에서 모던한 이미지에서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⁴¹⁾ 얼굴형이 둥글거나 각지고 넓은 턱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며 목이 길어 보이며, 가슴이 너무 크거나 작은 체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얼굴형에 맞추어 깊이를 조절 할 수 있다.⁴²⁾ 마르고 가름한 얼굴형은 양쪽 목 위로 살짝 올라오며 좁게 파인 브이 넥라인이 어울리며, 통통한 체형에 둥근 얼굴형이나 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넓게 파인 브이 넥라인이 어울린다.



<그림 19> 브이 넥라인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48)



<그림 20> 브이 넥라인
(웨딩 21, 2006. 2)

스퀘어 넥라인(그림 21, 22)은 직선적인 느낌의 네모난 넥라인으로 작은 형태의 사각형과 어깨 끝까지 사각형의 형태이다 웨딩드레스에서 세련된 느낌을 주며 주로 엠파이어 실루엣과 어울린다.⁴³⁾ 둥근 얼굴형과 넓은 어깨를 가진 체형에게 어울리며 각진 얼굴형이나 작고 마른 체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슴 형태에 어울리며 큰 가슴을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⁴⁴⁾

41) Ibid., p.20.

42)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42.

43) Delamore, Philip., op. cit. p.142.

44) Ibid., p.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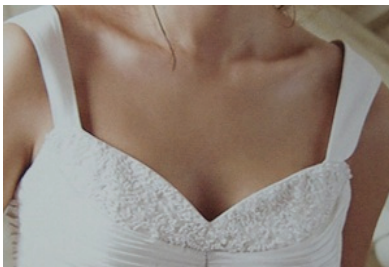


<그림 21> 스퀘어 넥라인
(이경진, A Wedding Dress
Collection, p.80)



<그림 22>스퀘어 넥라인
(마이웨딩, 2005. 11)

스위트 하트 넥라인(그림 23, 24)은 깊게 파지고 곡선으로 처리된 역 하트 모양의 넥라인이다.⁴⁵⁾ 웨딩드레스에서 스위트 하트 넥라인은 각진 넥라인에 비해 어려 보이는 효과를 주며, 대부분의 체형에 어울린다. 둥글거나 사각형, 오각형의 얼굴형을 부드럽고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며, 균형 잡힌 가슴을 가진 체형은 가슴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⁴⁶⁾



<그림 23> 스위트 하트 넥라인
(마이웨딩, 2007. 4)



<그림 24> 스위트 하트 넥라인
(웨딩 21, 200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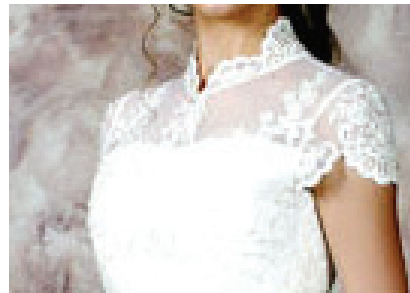
45)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op. cit., p.103.

46)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20.

하이 넥라인(그림 25, 26)은 목판에서 이어져 목선을 따라 높아진 넥라인으로 목과 가슴을 가려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이 길게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며 가름한 얼굴형과 어깨가 넓은 체형에게 민소매의 하이 넥라인이 잘 어울린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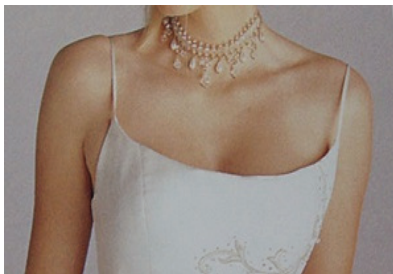


<그림 25> 하이 넥라인
(라스포사웨딩, 2007. 4)



<그림 26> 하이 넥라인
(마이웨딩, 2005. 11)

캐미솔 넥라인(그림 27, 28)은 바스트 라인보다 조금 위의 수평 라인에 끈이 달린 모양의 넥라인이다. 캐미솔 넥라인의 웨딩드레스는 솔과 함께 야외 촬영이나 애프터 드레스로 많이 입는다.⁴⁸⁾



<그림 27> 캐미솔 넥라인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43)



<그림 28> 캐미솔 넥라인
(웨딩 21, 200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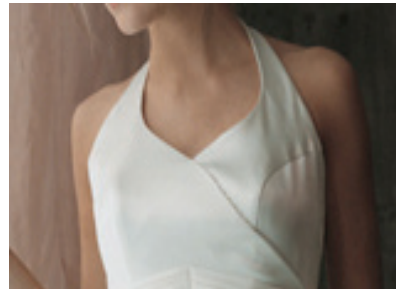
47) Ibid., p.21.

48) Ibid.

홀터 넥라인(그림 29, 30)은 앞몸판과 붙어있는 밴드나 끈을 목뒤로 두르거나 묶어서 만든 넥라인이다.⁴⁹⁾ 일반적으로 등이 없거나 등이 깊게 파인 스타일로써 웨딩드레스의 홀터 넥라인은 어깨나 팔, 등이 노출된다. 홀터 넥라인은 웨딩드레스 앞부분을 받춰 주며 작은 가슴은 커 보이게 하고, 큰 가슴은 받춰 주는 장점이 있다.⁵⁰⁾



<그림 29> 홀터 넥라인
(더 웨딩, 2007. 4)



<그림 30> 홀터 넥라인
(마이웨딩, 2005. 6)

③ 슬리브(Sleeve)

상의의 디자인은 슬리브에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슬리브는 어깨에서부터 팔에 걸친 연결 부분에 속하므로 팔의 운동, 굴신(屈伸)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거나 압축되어 형태가 변하기 쉬운 곳이므로 디자인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체형에 따라 뚱뚱한 사람과 홀쭉한 사람과의 슬리브 디자인은 다르게 된다⁵¹⁾

고대 트레이퍼리형 의복에서 인체에 꼭 맞는 의복으로의 전환기인 중세에는 돌먼 슬리브(Dolma Sleeve)나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가 유행하였으며, 근세 중기에는 케이프 슬리브(Cape Sleeve)와 하프 슬리브(Half Sleeve)가, 근대의 엠파이어 실루엣에는 작고 양증맞은 퍼프 슬리브(Puff Sleeve)와 벨 슬리브(Bell

49)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43.

50)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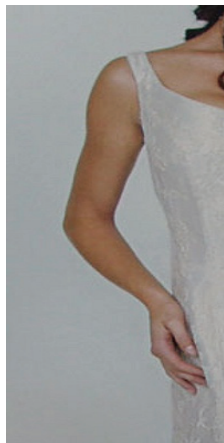
51)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op. cit., p.105.

Sleeve),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 등이 유행하였다.⁵²⁾

웨딩드레스의 슬리브에는 슬리브리스(Sleeveless), 셸 인 슬리브(Set in Sleeve), 캡 슬리브(Cap Sleeve), 벨 슬리브(Bell Sleeve), 튜립 실리브(Tulip sleeve), 퍼프 슬리브(Puff Sleeve), 볼룬 슬리브(Ballon Sleeve),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 등 종류가 다양하다.

슬리브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슬리브리스(그림 31, 32)는 슬리브를 달지 않은 형태의 슬리브이다. 가슴선을 수평으로 디자인하여 어깨 끈을 단 캐미솔 형태에서부터 가슴 윗부분을 완전히 노출시킨 형태는 물론 상체의 진동선에 소매가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슬리브리스라 부른다. 슬리브리스의 웨딩드레스의 경우 팔이 가늘다면 슬림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팔이 두꺼운 체형은 어울리지 않는다. 단, 팔을 적당히 가려주는 긴 장갑이나 베일, 숄 등을 같이 사용하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⁵³⁾



<그림 31> 슬리브리스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44)



<그림 32> 슬리브리스
(마이웨딩, 2005. 11)

52) 문윤경, op. cit., p. 40.

53)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22.

셀 인 슬리브(그림 33, 34)는 보디스에 슬리브를 별도로 붙인 슬리브의 총칭으로, 가장 일반적인 슬리브이다. 셀 인 슬리브는 웨딩드레스에서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여름에는 더워 보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지만 레이스나 얇고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면 소매를 달아도 팔을 드러낸 듯한 착각을 준다. 하나의 원단을 그대로 살려서 심플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소매 밑단 부분에 장식을 사용하기도 한다.⁵⁴⁾



<그림 33> 셀 인 슬리브
(더 웨딩, 2007. 4)



<그림 34> 셀 인 슬리브
(마이웨딩, 2005. 6)

캡 슬리브(그림 35, 36)는 어깨를 살짝 덮는 캡 모양의 짧은 슬리브이다. 웨딩드레스에서 캡 슬리브는 귀여운 느낌을 주며, 오프 더 숄더 드레스는 캡 슬리브로 끝맺음을 하기도 한다. 굵은 팔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날씬한 팔은 더욱 돋보이게 하며 어깨까지 올라오는 장갑과 함께 사용하면 좋다. 어깨가 좁은 체형은 캡 슬리브에 리본이나 구슬, 코사지 등을 장식하여 볼륨을 살려주면 어깨가 강조되어 이를 보완해 준다.⁵⁵⁾

54) Ibid., p.22.



<그림 35> 캡 슬리브
(더 웨딩, 2007. 4)



<그림 36> 캡 슬리브
(웨딩 21, 2006. 1)

벨 슬리브(그림 37)는 종의 모양으로 아래로 퍼지면서 플레어(flare)로 된 슬리브이다. 암홀부터 팔꿈치까지 좁게 되어있고 손목 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으로 웨딩드레스에서 벨 슬리브는 로맨틱한 이미지를 주며 팔이 굵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⁵⁵⁾



<그림 37> 벨 슬리브
(이경진, A Wedding Dress Collection, p.23)



<그림 38> 튜립 슬리브
(더 웨딩, 2007. 4)

55) http://cafe.naver.com/besora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35

56) 이경진, op. cit., p.16.

튤립 슬리브(그림 38)는 튤립모양의 꽃잎이 겹쳐진 듯한 짧은 슬리브이다. 웨딩드레스 튤립 슬리브는 매우 섬세하며 밑단을 절개하여 살짝 벌어지는 느낌을 준다. 시선을 좌우로 나누어 팔이 두꺼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퍼프 슬리브(그림 39)는 소매에서 어깨가 시작되는 부분에 주름을 잡아 소매 가운데가 부풀려진 스타일 중에서 길이가 짧은 슬리브이며 길이가 긴 슬리브는 벌룬 슬리브(그림 40)이다. 최근에는 퍼프 슬리브로 총칭해서 부르는 추세이며 퍼프 슬리브는 망쉬 발롱(manche ballon), 또는 멜론 슬리브(Melon Sleeve)라고도 한다. 웨딩드레스에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과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 준다. 상체가 마른 체형에게 어울리며 팔이 굵거나 목이 짧은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⁵⁷⁾



<그림 39> 퍼프 슬리브 <그림 40> 벌룬 슬리브 <그림 41>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더 웨딩, 2007. 4)

(이경진, A Wedding Dress Collection, p.77)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69)

57) <http://blog.empas.com/tourdb1/19493853>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그림 41)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양다리 모양을 따온 이름으로 위는 풍성하게 부풀리고 아래는 좁고 손목에서 꼭 끼게 한 슬리브이다. 웨딩드레스의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는 194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했으며 ‘지곳 슬리브’ 라고도 한다.

④ 소재

소재는 디자인을 정할 때 중요시 되는 재료로서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되며 고부가가치의 독자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재마다 장단점이 보완되어 고급화, 다양화, 기능화의 복합적인 소재로 제공된다.⁵⁸⁾ 웨딩드레스의 소재는 일반 의상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주로 유행되었던 것을 사용하였는데 고대 웨딩드레스의 소재로는 주로 면과 실크가 사용되었으며 중기에는 실크 벨벳 또는 브로케이드(brocade)가 많이 사용되었고 근세 후기에는 레이스가 과다하게 사용되었다.⁵⁹⁾ 그 이후에는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레이스(Lace), 시폰(Chiffon), 타프타(Taffta), 오간자(Organza), 크레이프(Crepe), 툴(Tulle) 등이 많이 쓰이고 겨울에는 브로케이드, 새틴, 벨벳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⁶⁰⁾

소재는 웨딩드레스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실루엣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⁶¹⁾ 웨딩드레스 소재 중 많이 쓰이는 실크류는 천연 소재로 실크가 가지는 우수한 특성인 섬세함, 부드러움 등으로 우아한 분위기의 드레스를 만들어 준다. 실크의 종류로는 새틴(Satin), 타프타, 라메(Lames), 산통 실크(Shantung Silk), 오간자, 툴, 시폰 등이 있다.

새틴은 밀도가 높은 직물로 한 면은 화려한 광택이 있고 다른 면은 무광택의

58) 박숙현, 「패션디자인론」(서울 : 예학사, 2004), p.132.

59) 문윤경, *op. cit.*, p.40.

60) 정영숙,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신고전주의 복식 이미지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p.35.

61) *Ibid.*

실크로서 일반적으로 공단으로 알려져 있다. 은은한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히 뽀뽀해 바느질이 매끄럽게 되고 부드러운 빛을 띤다. 시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재질감에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광택과 실의 굵기와 조직에 따라 결정되는 투시정도가 있다. 즉 새틴으로 짜여진 공단의 광택나는 표면과 빛을 흡수하는 침모직이나 기모직의 표면은 시각에 의해서도 재질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⁶²⁾ 새틴은 웨딩드레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로 새틴의 무게감으로 우아하게 펼쳐지는 고급스러운 느낌과 구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⁶³⁾

타프타는 실크나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짜여져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느낌의 불투명한 소재이다. 고급스럽고 은은한 광택이 있으며, 빛의 각도에 따라 이중적인 질감차이가 나타나는 웨딩드레스의 소재로 표면을 코팅가공 처리하여 뽀뽀한 촉감과 뽀뽀는 듯한 드레이프성이 강하여 페미닌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⁶⁴⁾ 최근에는 레이온 혹은 합성 섬유로 된 것이 많다.

라메(그림 42)는 금속사와 일반사로 짜여진 소재이다. 실크 또는 레이온과 혼방되는 웨딩드레스의 소재로 은이나 금이 녹아져 있는 것처럼 광택이 나서 음영이 아름답게 돋보이는 소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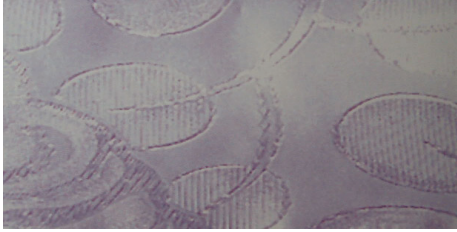
산통실크(그림 43)는 위사에 마디가 두드러져 보이는 거친 실크로 짜여진 직물로서 수직 실크로 불리기도 한다. 거칠고 차가운 느낌과 소박한 느낌을 주는 소재로서 광택이 없고 표면이 거칠어 모던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에 어울리며 버슬 스타일의 뒤 부풀림에 잘 어울린다.⁶⁵⁾

62) 이은정, op. cit., p.7.

63) 박정은, op. cit.,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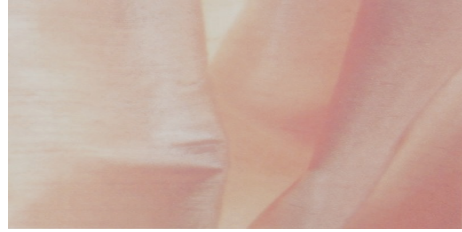
64)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55.

65) 박진희, op. cit., p.19.



<그림 42> 라메

(임 순, 김은희, 드레스 디자인 및 패턴제작, p.92)



<그림 43> 산통실크

(나수임, 드레스 제작 기법, p.24)

오간자(그림 44)는 가늘고 투명한 직물로서 보통 실크로 되어 있으며, 레이온과 합성 섬유로 된 것도 있다. 약간 뽀뽀한 느낌과 광택이 있어서 개더나 플리츠 스커트에 사용되며 레이스와 잘 어울린다. 새틴보다 가벼운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웨딩드레스의 오간자 소재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화려하게 나타낼 수 있다.⁶⁶⁾

틀(그림 45)은 육각형의 그물 조직으로 실크나 목면, 인조 섬유 등을 기계 편직하여 구멍이 있는 그물처럼 망으로 실을 꼬아 엮어 만든 것으로 망사라고 부른다.⁶⁷⁾ 틀은 가벼워서 속이 비치는 효과가 있어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주며 뽀뽀하여 페티코트나 베일을 제작하는 데에 웨딩드레스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폰은 얇고 비치는 평직의 직물로 실크 중에서 가장 유연하며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이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주름과 반투명이면서 실크나 레이온 등으로 짠 얇고 가벼운 웨딩드레스 소재로 몸매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려주기 때문에 앰파이어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⁶⁸⁾

66)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54.

67)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op. cit., p.141.

68)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54.



<그림 44> 오간자
(나수임, 드레스 제작 기법,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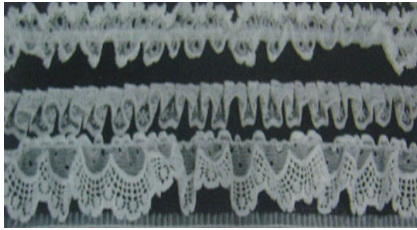


<그림 45> 톨
(임 순, 김은희, 드레스 디자인 및 패턴제작,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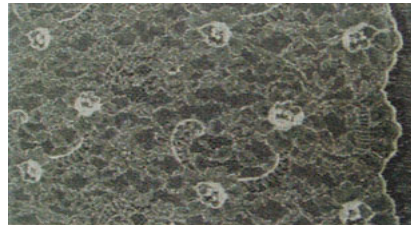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소재에 있어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레이스는 실을 꼬거나 합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성글게 짜여진 것으로 기계로 짠 것과 손으로 짠 편물을 말한다.⁶⁹⁾ 다양한 문양이 줄로 이어져 있어 웨딩드레스의 디테일한 라인을 강조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라인 레이스(Line Lace)(그림 46), 그리고 기계 레이스로 아름답고 우아하면서 섬세하여 수공 레이스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고 미술성이 뛰어난 최고급 레이스인 리버 레이스(Leaver Lace)(그림 47), 여러 무늬가 연속적으로 배합되며 자수가 놓여진 가장자리의 굵기에 따라서 끈으로 장식 처리되어 있는 코드 레이스(Cord Lace)(그림 48), 스커트의 끝단부분에 장식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문양이 다양해서 스타일과 디자인의 유행에 따라서 스커트의 가장자리에 원단과 레이스를 매치시킬 수 있는 헴 레이스(Hem Lace)(그림 49), 코드 사로 꽃과 꽃줄 장식 가장 자리에 깔끔하게 윤곽선을 만드는 섬세한 왕실 레이스인 알렉송 레이스(Alinco Lace)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레이스 소재는 슬립 앤 시스 스타일에 잘 어울리고, 전체적으로 쓰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화려하고 고급스런 이미지 연출을 할 수 있다.⁷⁰⁾

69) 박정은, op. cit., p.50.

70) 박진희, op. cit., p.20.



<그림 46> 라인 레이스
(양정은, 성옥진, 입체 재단
으로 배우는 드레스 제작의
기초, p.23)



<그림 47> 리버 레이스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웨
딩드레스 제작 및 실무,
p.57)



<그림 48> 코드 레이스
(나수임, 드레스 제작 기법, p.23)



<그림 49> 헴 레이스
(임 순, 김은희, 드레스 디자
인 및 패턴제작, p.95)

봄이나 여름에는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의 레이스나 노방, 망사가 어울리며 가을이나 겨울에는 우아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단과 수직실크 등의 소재가 어울린다. 소재의 질감과 함께 중요한 소재의 색상은 백색이 가장 무난하지만 아이보리 색이나 파스텔톤으로 장식된 소재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⁷¹⁾

71) <http://blog.empas.com/tourdb1/19493853>

(2) 웨딩드레스의 장식적 구성요소

① 베일

장식은 웨딩드레스를 표현하는데 있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신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일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전 시대를 통하여 웨딩드레스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⁷²⁾

베일은 얼굴이나 머리를 덮는 천으로 은폐, 보호, 장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베일의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정의 여신 베스타의 불꽃에서 시작되었다. 로마의 신부들은 베스타 여신의 정열을 표현하기 위해 선황색이 가미된 금빛의 베일을 입었다고 한다.

로마시대 신부 의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베르(nubere), 즉 베일로써 결혼을 의미했으며 결혼식 다음날 베일을 벗었다. 햇트 드레스(Hat Dress)에 베일이 사용된 것은 로마시대부터이며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다가 13세기에서 14세기 초에 백색을 사용하게 되었다. 결혼식 때 얇으면서 비치는 베일을 쓰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편이나 리본으로 머리에 고정시켰다.⁷³⁾ 중세에 와서는 색보다는 천의 재질이나 장식이 중시되었다.⁷⁴⁾

베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암전하고 조신함을 나타내기 위해, 결혼을 한 여자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 동양에서 4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특히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집을 나갈 때 반드시 머리와 얼굴의 일부를 덮어야 했고, 남자가 만든 이 계율은 더욱 엄격해져서 눈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가려야 했다.⁷⁵⁾

베일의 소재는 처음에는 그물모양으로 짜여진 얇은 명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72) 문윤경, op. cit., p.41.

73)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41.

74) 이은정, op. cit., p.5.

75) 김계형, “우리나라 여성의 웨딩드레스 선호도 비교 : 1980~2001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2), p.12.

긴 베일이 만들어진 현재에는 명주, 망사, 나일론,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⁷⁶⁾

베일의 길이는 크게 짧은 베일과 긴 베일로 분류되는데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식에 대부분 긴 베일을 착용한다. 전통적인 결혼식을 치룰 때, 즉 정오 12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행하는 결혼식에서 신부는 타원형의 레이스 베일이나 무릎길이 혹은 바닥에서 몇 야드 끌리는 긴 베일이나 어깨를 우아하게 덮는 베일을 사용하였다. 짧은 베일은 비형식적인 결혼, 즉 정오 12시 이후에 긴 드레스를 입지 않고 짧은 드레스나 약식드레스를 착용했을 때 어깨 길이나 등 길이 정도의 베일을 사용하였다.⁷⁷⁾

베일의 스타일은 길이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진다. 블러셔(Blusher)(그림 50)는 머리 정수리 위에 고정된 어깨 길이의 베일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화관 뒤로 넘겨진다. 보통 긴 베일이나 모자에 연결되기도 하며 심플한 모던 드레스 스타일에 어울린다. 블러셔는 모든 얼굴형에 잘 어울린다.⁷⁸⁾

엘보 령스(Elbow length)(그림 51)는 팔꿈치까지 떨어지는 심플한 베일이다. 머리 중앙부에 한 겹, 두 겹이나 세 겹을 겹쳐 사용하는데, 높이와 형태를 만드는 분수 스타일(fountain style)을 포함하고 있다. 베일의 높이와 너비가 얼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가름한 얼굴에 잘 어울린다.⁷⁹⁾

핑거 팁(Finger Tip)(그림 52)은 손끝까지 떨어지며 등이나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의 베일이다. 레이스와 새틴 리본이 달려있으며 클래식하고 포멀한 웨딩드레스에 어울린다.

76)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op. cit., p.41.

77) 이은정, op. cit., p.5.

78) Delamore, Philip., op. cit., p.176.

79) Baldrige, Letitia., 「*Legendary Brides*」 (New York : Madison Press Book, 2000), p.94.



<그림 50> 블러셔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82)



<그림 51> 엘보 령스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78)



<그림 52> 핑거 팁

(Martha Stewart Weddings, 2007. Spring)

채플(Capel)(그림 53)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일로 바닥을 스칠 정도의 길이이며,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 뒷부분에 씌여지며 길거나 마른 형태의 얼굴은 균형 잡혀 보이도록 도움을 준다.

캐더럴(Cathedral)(그림 54)은 110인치 정도 되는 길이의 가장 길고 형식적인

스타일의 베일이다. 큰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왕가의 결혼식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베일은 웨딩드레스와 함께 로맨틱하며 신비로움과 매혹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53> 채플
(이경진, A Wedding Dress Collection, p.77)



<그림 54> 캐더럴
(마이웨딩, 2005. 11)

② 트레인

트레인은 전통적으로 예복의 특징이 되어왔던 것으로 바닥에 끌리도록 스커트에서 잘려서 나오거나 분리되어 부착된 형태이다. 중세 이후는 모피나 보석 장식을 한 롱 트레인이 널리 이용되었으며, 특히 14세기 말에는 극도로 풍성하였고, 근대에는 앰파이어 스타일이나 버슬 스타일의 부활과 함께 절정을 이루었으나 1910년부터 1914년 동안은 대체로 그 형태가 피시 테일(fish tail)의 형태이거나

인어 꼬리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 이후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롱 트레인을 하고 있다.⁸⁰⁾

트레인은 길이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 지는데 브러쉬(Brush)(그림55)는 가장 짧은 스타일로 실루엣을 길게 보이게, 바닥에 살짝 닿는다. 엠파이어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와또(Watteau)는 어깨에 부착된 스타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끌리는 형태이며 분리가 가능하며 프린세스 스타일에 어울린다.

코트(Court)는 허리에서 떨어지며 브러쉬 스타일 보다 조금 풍성한 트레인이다. 전통적인 귀족적 이미지를 보여주며 황실의 행사를 위해서 자주 입혀져서 인기 있는 길이가 되었으며 프린세스 스타일과 A 라인 스타일에 제일 잘 어울린다.

채플(Chapel)(그림 56)은 매우 인기 있는 트레인으로 허리로부터 약 1m에서 1m 50cm 정도 길게 하는 트레인이다. 실용적인 모습으로 모든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캐더럴(Cathedral)(그림 57)은 허리로부터 약 2m에서 2m 50cm 정도 길게 제작되며 매우 격식이 있는 디자인의 스타일이다.

모나크(Monarch)(그림 58)는 왕실의 결혼식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허리로부터 20인치 이상 길게 만들어지며 이 거대한 트레인은 5세에서 8세 사이의 플라워 보이들이 양끝을 들고 신부가 걸어 들어가는 길을 따라 가며 드라마틱한 광경을 연출한다.⁸¹⁾

트레인은 신부복의 낭만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식의 상징이며, 결혼식이 호화로울수록 트레인은 더욱 길어진다.⁸²⁾ 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한

80) Yarwood, 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 Bonaza Books, 1986), p.410.

81) 이경진, op. cit., p.18.

82) Yarwood, D., op. cit., p.410.

다면 풀(full) 트레인이 어울리며, 대성당에서 한다면 캐더럴 트레인이 가장 어울린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는 채플 트레인이 잘 어울린다.

이외에 장신구로써 웨딩 햇(hat), 크라운(crown), 꽃, 리본 등을 베일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부케(bouquet), 장갑, 구두 또는 액세서리 등이 웨딩드레스의 특징을 살려 사용되었다.



<그림 55> 브러쉬
(마이웨딩, 2005. 10)



<그림 56> 채플
(웨딩 21, 2007. 5)



<그림 57> 캐더럴
(마이웨딩, 2005. 10)



<그림 58> 모나크
(웨딩 21, 2005. 11)

2) 현대 웨딩드레스의 변천

(1)1900년대

1900년대 웨딩드레스(그림 59)는 과거에 비해 인체의 과장이나 부풀림이 사라지고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S-커브 실루엣이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코르셋과 함께 착용하여 웨이스트가 올라갔다.⁸³⁾ S-커브 실루엣은 허리를 가늘게 조였으며,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고, 엉덩이는 뒤로 돌출된 형태로 옆에서 본 실루엣이 S-커브를 만들었다. S자 형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슴에 딱딱한 심을 대거나 손수건이나 얇은 헝겊을 집어넣었으며, 납작하고 가는 허리선을 위해서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스커트는 더욱 길게 휘감기고 넓게 퍼지도록 디자인하여 물결치는 듯한 울동감을 느끼게 하였다. 많은 여성들은 폼파두르(pompadour) 헤어스타일에 다양한 디자인의 장갑과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모자에 리본, 레이스, 꽃, 깃털, 베일 등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S-커브 실루엣의 드레스를 착용했다.⁸⁴⁾



<그림 59> S-커브 실루엣과 엠파이어 라인이 혼용된 드레스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

83)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4.

84) 양숙향, 김나형, 김은실, 「패션 20세기」(서울 : 교학연구사, 2006), p.14.

(2) 1910년대

1910년대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동양적인 패션이 나타났으며,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변화하게 된다.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은 가슴의 강조가 줄어들고 허리선은 자연스러운 위치이거나 약간 올라가서 몸에 더 편안하게 맞으며⁸⁵⁾ 스커트는 폭이 좁고 직선 형태에 길이는 차츰 짧아졌다. 1910년대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Empire Tunic Style)은 하이 웨이스트에 부드러운 주름이 치마단까지 흐르는 스타일로 허리를 조이지 않았으며, 여성들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미나렛 스타일(Minaret Style)(그림 60)은 1912년경 디자인 한 것으로 튜닉의 도련에 철사를 넣어 램프 전등갓처럼 둥그렇게 퍼지도록 하고 아래는 발목 길이의 호블 스커트(Hobble skirt)를 착용하였다.⁸⁶⁾



<그림 60> 미나렛 튜닉과 호블 스커트
(Buxbaum, Gerda., *20th century Fashion*, p.36)

85) Ibid., p.36.

86) 신상옥, op. cit., p.35.

(3) 1920년대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웨딩드레스도 좀 더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웨딩드레스의 실루엣(그림 61)은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가늘고 긴 형태이며, 신체를 험렁하게 감싸주는 튜브형태로 허리선이 내려감으로써 힙선이 강조되었다.⁸⁷⁾ 후기에는 구슬, 레이스, 자수같은 외부장식이 많이 사라지고 상체부터 힙선까지 밀착되어 강조되었다. 또한 트레인(그림 62)이 재평가되어 궁중풍의 어깨에 고정된 망토 형식의 경향이 나타났다.⁸⁸⁾



<그림 61> 1920년대 웨딩드레스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12)



<그림 62> 1920년대 웨딩드레스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92)

87)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4.

88) 문윤경, op. cit., p.31.

(4) 1930년대

여성다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1930년대는 롱 앤 슬림 실루엣(Long & Slim Silhouette)이 유행했다(그림 63). 롱 앤 슬림 실루엣은 가냘프게 보이는 형태에 허리선은 자연스럽게 맞으면서 힙 아래에서 서서히 퍼지는 형태이다. 스커트 길이가 발목 아래로 길어졌고 어깨는 점점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엉덩이는 작아 보였으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여 가슴선을 살렸다. 스커트에는 바이어스 재단과 플레어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실루엣을 나타냈다.⁸⁹⁾



<그림 63> 1937년 결혼식

(정현숙, 20세기 패션, p.119)

(5) 1940년대

1939년에 발발하여 1945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패션에는 큰 변화가 없는 ‘패션의 공황기’라 불린다. 1940년대 웨딩드레스(그림 64, 65)는 전쟁의 영향으로 밀리터리룩(Military Look)이 유행하였으며 경기침체와 물자부족으로 인해 웨딩드레스도 빌려 입거나 가족의 것을 재 착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웨

89)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4.

딩드레스의 특별한 디자인 보다는 어깨는 각이진 형태에 가슴은 자연스럽게 살린 밀리터리풍의 실용적인 수트나 평상복을 착용했다.⁹⁰⁾ 하지만 1947년 뉴룩(New Look)이 등장하여 실루엣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유행에 혁신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은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고 스커트에 플리츠나 개더를 넣어 풍성하게 하였으며 입체감과 율동성 있는 실루엣이 유행하였다.⁹¹⁾ <그림 66>는 1947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모습으로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상아색 새틴 드레스에 진주와 옥으로 장식하여 견고한 인상을 주며, 긴 궁중풍의 이중으로 된 베일이 패션성과 함께 의례성을 상징하였다.



<그림 64> 1940년대 결혼식 사진
(<http://fashion-era.com>)



<그림 65> 전쟁 중의 결혼식 사진
(<http://fashion-era.com>)

90) 박진희, op. cit., p.14.

91) 양숙향, 김나형, 김은실, op. cit., p.105.



<그림 66>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36)

(6)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도시화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나타나고 패션에 있어서도 기성복의 대중화가 가속되어 패션 산업이 거대화 되면서 패션의 국제화, 세계화 현상이 나타났다.⁹²⁾ 195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매우 여성적인 스타일(그림 67)로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 스커트는 풍성하고 길이가 길어졌다. 후에 웨딩드레스는 약간 직선적이고 길이는 짧아졌다.⁹³⁾ 1956년, 할리우드 영화 배우였던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의 웨딩드레스(그림 68)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자이너 헬렌 로즈(Helen Rose)가 디자인한 것으로 화려한 드레스였다. 이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로맨틱한 드레스가 등장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피폐되었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92) 박진희, op. cit., p.15.

93)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5.

을 표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⁹⁴⁾



<그림 67>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결혼식 <그림 68>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식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36) (<http://www.geocities.com>)

(7) 1960년대

1960년대의 예술사조인 팝 아트가 패션에 영향을 미쳤고 중반 이후에는 히피 문화가 출현했으며 일정한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패션에 다양화가 이루어졌다.⁹⁵⁾ 1960년대 웨딩드레스는 전체적으로 넉넉한 형태의 편한 스타일로서 발목정도의 스커트 길이와 종모양의 형태(그림 69)였고,⁹⁶⁾ 후반기로 갈수록 직선 형태의 원피스 스타일이 강세를 띠면서 H라인 스타일(그림 70)이 많이 등장하였다.

94) 박정은, op. cit., p.23.

95) 박진희, op. cit., p.15.

96)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5.



<그림 69> 1960년대 웨딩드레스
(<http://worldtown.naver.com/nboard>)



<그림 70> 1960년대 웨딩드레스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27)

(8) 1970년대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경제적 불황기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다목적 패션이 유행하였다. 유니섹스(unisex)모드가 대두되었고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디자인이 선 보였다. 1970년대 웨딩드레스에서도 여러 시대의 디자인이 한 드레스의 소매나 네크라인 스커트, 디테일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였으며⁹⁷⁾ 초기에는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드레스의 형태를 길고 가늘게 하였으며 어깨는 좁고 허리는 적당히 피트 되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소매 끝에 다시 주름을 넣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몸에 꼭 맞는 양

97) 박진희, op. cit., p.16.

장스타일의 디자인(그림 71)이 등장하였다.⁹⁸⁾



<그림 71> 1971년 결혼식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134)

(9)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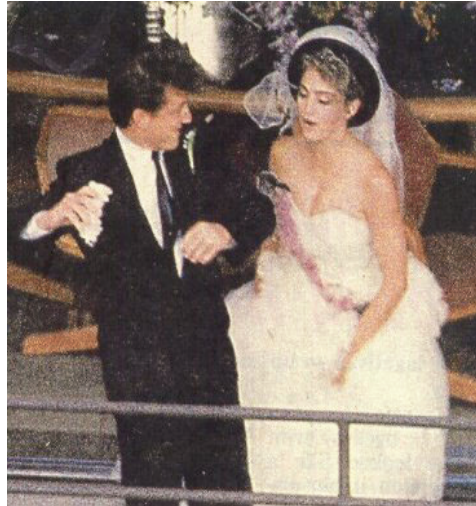
1980년대는 1970년대의 불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졌고 세계 각국 문화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패션에도 다변화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웨딩드레스에도 과거의 디자인을 따르는 복고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과거의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였다.⁹⁹⁾ 1980년대 웨딩드레스는 로맨틱한 스타일(그림 72)이 인기였으며 미니 드레스가 등장하였다. 어깨를 퍼프 슬리브로 강조하였고, 스커트는 페티코트를 이용하여 부풀리거나 스트레이트 형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¹⁰⁰⁾ 1981년 영국의 다이애나비의 웨딩드레스(그림 73)는 수 천개의 진주, 리본, 앤틱 레이스로 장식된 타프타 소재의 드레스로 약 25피트 길이의 트레인이 달리고, 레그 오

98)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5.

99) 박진희, op. cit., p.16.

100)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5.

브 머튼 슬리브로 어깨가 강조 되었고 몸에 꼭 맞는 상체와 네크라인은 둥글고 프릴 장식이 되어 있었다. 다이애나비의 결혼을 기점으로復古적 성향이 강한 로맨틱한 웨딩드레스가 1980년대 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림 72> 1985년 8월 마돈나 손펜의 결혼식
(<http://worldtown.naver.com/nboard>)



<그림 73> 다이애나비의 웨딩드레스
(<http://worldtown.naver.com/nboard>)

(10) 1990년대

1990년에는 세기말적 특성과 더불어 복고적 성향으로의 리사이클 패션이 나타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신적이고, 자연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났다.¹⁰¹⁾ 199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초반에는 어깨나 힙 등을 강조하여 꼭 끼는 디자인이었으나 후반은 자연스럽게 피트 되는 스타일(그림 74, 75)이 강조되었다.¹⁰²⁾



<그림 74> 1999년 결혼식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p.72)



<그림 75> 1996년 케롤라인 베셋 결혼식
(<http://cafe.daum.net/joycatch>)

101) 박진희, op. cit., p.16.

102) 오선숙, 임선영, 손윤경, op. cit., p.35.

(11) 2000년대

2000년대는 웨딩드레스는 럭셔리와 심플함을 동시에 지향하게 되면서 실루엣은 슬림화, 단순화하고 디테일과 소재는 자수, 비즈 실크 위주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추세로 바뀌었다(그림 76, 77). 예전에는 웨딩드레스의 상징이었던 종 모양의 풍성한 스커트 실루엣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A 라인 실루엣(그림 78)이나 H 라인의 실루엣(그림 79)이 유행하고 있다.

장식은 레이스, 자수, 비즈 등으로 한층 화려해졌으며, 최근 열린 각종 웨딩 디자인 박람회에서는 새틴 소재에 꽃무늬 위주의 자수, 인조 보석을 사용한 섬세한 비즈 등으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강조한 웨딩드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76> 2001년 제니퍼 로페즈 결혼식
(<http://www.jenniferlopez.com/>)



<그림 77> 2004년 베라 왕 드레스
(<http://www.verawang.com/>)



<그림 78> 2006년 캐롤리나헤레라 웨딩드레스 <그림 79> 2007년 웨딩드레스
 (<http://www.infomat.com/whoswho/carolinaherrera.html>) (Martha Stewart Weddings, 2007. Spring)

3) 웨딩드레스 선행연구

웨딩드레스의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역사적 측면, 디자인 측면부터 마케팅 측면, 이미지 자각 측면, 시각적 감성 측면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윤경(1995)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별로 시대적 배경과 풍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도입배경과 근대 이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였다

김계형(2002)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패션과 웨딩드레스의 경향을 비교하고 시대별로 미혼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 경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은정(2005)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분석과 서울지역과 울산지역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감성이미지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박진희(2005)은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고 체형 특성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박희영(2005)은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대여 웨딩드레스의 사이즈 체계를 살펴보고 상반신 사이즈를 분류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표 1)을 참고하여 본인의 연구는 실루엣의 유형으로 프린세스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버슬 실루엣, A 라인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넥라인 유형은 라운드 넥라인, 보트 넥라인, 어프 더 숄더 넥라인, 브이 넥라인, 스퀘어 넥라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매 유형은 슬리브리스, 셸 인 슬리브, 캡 슬리브, 벨 슬리브로 분류하였다. 소재는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실크로 분류하였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사이즈에 관해서 웨딩드레스 샵과 실제 고객의 웨딩드레스 착용과 관련된 구성측면에서의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디자인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디자인	문윤경(1995)	김계형(2002)	이은정(2005)	박진희(2005)	박희영(2005)
실루엣	1. 프린세스 2. 크리놀린 3. 머메이드 4. 버슬 5. 미나레트 6. 앰파이어 7. 케이프	1. 프린세스 2. 크리놀린 3. 머메이드 4. 버슬 5. 미나레트 6. 앰파이어	1. X실루엣 2. H실루엣 3. A실루엣 4. 머메이드 5. 앰파이어	1. A라인 2. 크리놀린 3. 프린세스 4. 수트 5. 앰파이어 6. 머메이드	
네크라인	1. 하이 2. 브이 3. 라운드 4. 스퀘어 5. 보티유 6. 스위트하트 7. 어프더 솔더 8. 탱크 탑 9. 홀터	1. 하이 2. 브이 3. 라운드 4. 스퀘어 5. 보티유 6. 스위트하트 7. 오프더솔더 8. 탱크 탑 9. 홀터	1. 스위트하트 2. 브이 3. 보트 4. 스퀘어 5. 홀터 6. 오벌 7. 리플칼라 8. 차이나 칼라	1. 라운드 2. 브이 3. 스퀘어 4. 오프솔더 5. 보트 6. 하이 7. 하트 8. 캐미솔	1. 하이 2. 홀터 3. 라운드 4. 스퀘어 5. 바토 6. 하트 7. 오프솔더 8. 퀸 9. 탱크 탑 10. 브이
소매	1. 슬리브리스 2. 셀-인 3. 벌룬 4. 텍트 5. 레그오브머튼 6. 케이프 7. 벨 8. 퍼프 9. 캡 10. 포인터드 11. 투울립	1. 슬리브리스 2. 셀-인 3. 벌룬 4. 텍트 5. 렉오브머튼 6. 케이프 7. 벨 8. 퍼프 9. 캡 10. 포인터드 11. 투울립		1. 슬리브리스 2. 짧은(타이트) 3. 칠부(타이트) 4. 긴(타이트) 5. 퍼프 6. 플라운스드 7. 만다린 8. 티어드 9. 레그오브머튼	1. 퍼프 2. 레글런 3. 셀-인 4. 케이프 5. 민소매
소재	1. 공단 2. 노방 3. 레이스 4. 방사 5. 벨벳 6. 실크	1. 공단 2. 노방 3. 레이스 4. 방사 5. 벨벳 6. 실크	1. 공단 2. 노방 3. 레이스 4. 망사 5. 벨벳 6. 실크	1. 쉬폰 2. 공단 3. 산똥실크 4. 레이스 5. 노방주	

2. 성인 여성복의 치수 체계

웨딩드레스는 사이즈 분류가 세분화된 성인 여성복에 비해 기본 사이즈의 제작이 한 사이즈로 통일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의 연구를 위해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선택되고 있는 성인 여성복 사이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복 제작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의류 치수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은 1980년 산업의 표준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의류업계의 요청으로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규격에 이르고 있다.¹⁰³⁾

1981년에 제정되어 신사복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신체 호칭과 신체치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1차 제청시 호칭은 신체 각 부위의 평균치수를 ‘5’ 라는 기호로 설정하여, 예를 들면 성인 여성복 상의의 경우 ‘키-가슴둘레’를 구성요소로 ‘55’가 평균에 해당하는 중심치수가 되었다. 이것은 1980년 당시 평균치로서 키 155cm, 가슴둘레 85cm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복호수이다. 여기에 키는 5cm, 가슴둘레는 3cm로 등간을 두어 호수를 조합하도록 하였다.¹⁰⁴⁾

이어서 1987년에 제 2차 국민체위조사 결과를 반영한 규격 제정이 이루어져 성인 여성복 의류의 경우 22개로 호칭이 추가되었다. 1990년에는 앞서 제시된 호칭의 개념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¹⁰⁵⁾와의 규격통일을 위해 기호에 의한 호칭을 배제하고 직접 신체치수를 기재하도록 하

103) 오설영,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p.10.

104) Ibid., p.348.

105)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국가표준기관의 연합체이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분야의 협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었는데 즉 기본 치수를 인체 그림 위에 삽입하거나 치수항목과 신체치수를 직접 라벨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치수 규격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피트니스가 요구되는 성인 여성복 상의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로 바뀌어 표기법이 ‘85-90-155’로 되었으며 이것은 1차 호칭의 ‘55’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등간은 각각 3cm, 2cm, 5cm로 하였다.¹⁰⁶⁾

이후 1990년 제정된 KS K0051 성인 여성복 치수규격은 착용의 구분에 따라 상의류와 하의류로 구분하였다. 이를 피트니스의 여부에 따라 필요한 부위를 구분하여 성인 여성복 제작 치수를 결정하였다.¹⁰⁷⁾

또한 1999년에 KS 규격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기존과 달라진 1999 KS 규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체형의 구분은 엉덩이 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인 드롭(drop: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값에 따라서 보통체형(N), 가슴이 발달한 체형(H), 엉덩이가 발달한 체형(A)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다시 신장의 범위에 따라 적용시키고 있다(표 2).¹⁰⁸⁾

<표 2> ISO에 의한 드롭값과 분포율 (1999년도)

체형구분	드롭값의 평균	빈도수(명)	빈도(%)
보통체형(N)	6cm	221	47.6
엉덩이가 발달한 체형(A)	12cm	198	42.7
가슴이 발달한 체형(H)	0cm	45	9.4

106) 이형숙,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성인여성복 치수설정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8.

107) 이희춘, 성인 여성복 자켓 치수체계와 소비자의 치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8.

108) 오설영, op. cit., p.11.

드롭은 체형의 크기에 의해 분류하는 법으로 ISO 사이즈 체계에 의한 분류로써 ISO 사이즈체계는 국제적인 체계로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국제화를 위한 방법으로 ISO 사이즈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류 규격과 치수에 통일성을 주며 소비자로서 하여금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¹⁰⁹⁾

1999년도와 현재(KS K 0051:2004) 성인 여성복 상의 규격의 치수간격 변경 및 체형구분은 엉덩이둘레의 간격이 2cm에서(1999)에서 3cm로 변경(현행)되었고, 체형구분은 보통체형, 가슴과 힙의 차이가 큰 체형, 가슴과 힙의 둘레가 거의 같은 체형(99)에서 보통체형,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현행)으로 변경되었다. 성인 여성복 하의 규격의 경우 체형 구분이 도입되었는데 하드롭(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 차이)값에 따라 하의용 체형 구분을 도입하였다(표 3).¹¹⁰⁾

<표 3> 현재(KS K 0051:2004) 성인 여성복 체형 구분

구분	내용	드롭 분포(평균)	하드롭 분포(평균)
상의용 체형	보통체형(N)	3~9(6)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A)	9~21(12)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H)	-14~3(-1)	
하의용 체형	보통체형		14~22(18)
	허리가 가는 체형		22~38(25)
	허리가 굽은 체형		-4~14(10)

109) Ibid., p.17.

11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S K0051:2004, p.5.

또한 상의용 체형과 하의용 체형의 구분에 따른 분포율을 보면 상의용 체형은 보통 체형이 44.7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이 31.0%,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이 24.21%로 가장 낮게 제시하고 있다. 하의용 체형은 보통 체형이 41.8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허리가 가는 체형이 39.68%, 허리가 굵은 체형이 18.48%로 가장 낮게 제시하고 있다.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에서는 허리가 가는 체형이 25.33%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은 허리가 굵은 체형이 14.69%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다(표 4).¹¹¹⁾

<표 4> 체형의 분포율

단위 : %

상의용 체형 하의용 체형	보통체형(N)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체형(A)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H)	합계
보통 체형	27.10	5.51	9.22	41.84
허리가 가는 체형	14.05	25.33	0.30	39.68
허리가 굵은 체형	3.62	0.17	14.69	18.48
합계	44.77	31.01	24.21	100.00

성인여성복의 기본 신체 부위별 신체 치수는 피트성이 필요한¹¹²⁾ 의류의 신체 치수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는¹¹³⁾ 의류의 신체 치수로 구분된다. 피트성이 필요한 의류의 신체 치수는 100cm를 기준으로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는 3cm, 키는 5cm 간격으로 연속하며, 키를 제외한 각 신체 치수는 표기된 값의 ± 1.5 cm 범위를 커버하며 키는 ± 2.5 cm 범위를 커버한다.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

11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S K0051:2004, p.16.

112)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란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강조되는 의류 즉 착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좁은 의류임

113)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란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의류, 즉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착용할 수 있는 의류임

는 의류의 신체 치수는 100cm를 기준으로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키는 5cm 간격으로 연속하며 각 신체 치수는 표기된 값의 ± 2.5 cm 범위를 커버한다(표 5).

<표 5> KS 성인여성복 기본 신체 부위별 신체 치수

기본신체부위	피트성이 필요한 의류의 신체치수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의 신체치수
가슴 둘레	… 79, 82, <u>85</u> , 88, 91 …	… 75, 80, <u>85</u> , 90, 95, …
허리 둘레	… 67, 70, <u>73</u> , 76, 79 …	… 60, 65, <u>70</u> , 75, 80 …
엉덩이 둘레	… 85, 88, <u>91</u> , 94, 97 …	… 80, 85, <u>90</u> , 95, 100 …
키	… 150, 155, <u>160</u> , 165, 170 …	… 150, 155, <u>160</u> , 165, 170…

주) 밑줄은 신체 치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부위를 살펴보면(표 6)¹¹⁴⁾ 상의 중 피트성이 필요한 정장 상의인 정장 재킷, 정장 조끼, 정장 코트, 피트한 블라우스 등에서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를 표시하고 상의 중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캐주얼 재킷, 캐주얼 코트, 점퍼 등은 ‘가슴둘레-키’ 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하의 중 피트성이 필요한 정장 바지와 정장 스커트는 ‘허리둘레-엉덩이둘레’ 로 표시하고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캐주얼 바지와 캐주얼 스커트는 ‘허리둘레’ 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 연결의를 살펴보면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는 오버코트 등의 코트와 캐주얼 원피스, 실험 가운 등은 ‘가슴둘레-키’ 로 표시하고 피트성이 필요한 정장 원피스, 드레스 등의 원피스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로 표시하고 있다.

의류 치수 규격은 의복의 범위를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스타일로 나누어 기본 신체치수의 의류치수별 간격을 제시함으로써 규격의 범위를 단순화하였으며 국제표준기구(ISO)의 규정을 반영하여 신체치수를 직접 제품에 표기하거나 인체 그림에 치수를 삽입하도록 하였다.¹¹⁵⁾ 인체는 높이 항목

114)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115) 박희영, op. cit., p. 26.

과 길이 항목, 둘레 항목, 두께 항목, 너비 항목 등이 복합되어 곡면체를 이루면서 독특한 개개인의 체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같이 키, 허리 둘레, 등의 기본 치수의 평균이나 자료 등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인체 적합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형 분류가 필요하다. 측정된 인체측정치들 산업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체형분류를 통해 대표 체형군을 설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타겟 수요층, 또는 제품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⁶⁾

이와 같은 체형 개념의 도입은 개개인의 체형 특징을 치수 체계에 적극 반영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되어 산업체의 재고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¹¹⁷⁾ 또한 의류제품의 라벨에 부착되는 호칭 표기는 현행 KS 체계에 따라 신체부위의 조합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44, 55, 66 ...등으로 호칭되는 1987년의 구 호칭규격을 의류 구매시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사이즈 선택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¹¹⁸⁾

산업 자원부 기술 표준원이 따르면 2006년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의류 표기법으로 교체 내용이 포함된 ‘섬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3개월 가량을 유예기간으로 두어 패션업체들은 2007년 3월 24일부터 새로운 표기법으로 의류 치수를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 국내 의류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지난 2000년 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적 표시제도(권고사항)로 운영되고 있다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품질표시 이행률이 저조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나 리콜 조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품질표시 권고를 의무화로 강화하고 내용을 내실화했다.

116)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http://sizekorea.ats.go.kr/>

117) 오설영, op. cit., p.11.

118) 박희영, op. cit.,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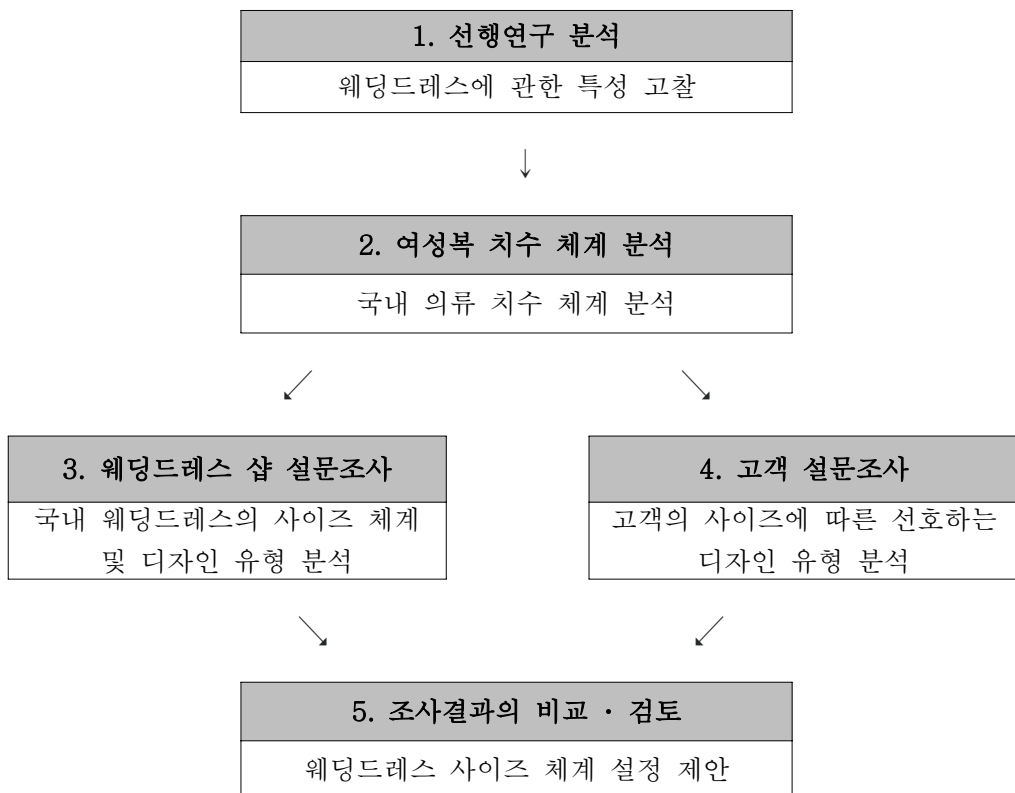
<표 6> KS 성인 여성복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2004)

구분	의류 종류 대표명	예 시	기본 신체 부위 및 표기 순서		
			1	2	3
상의	정장 상의	정장 재킷, 정장 조끼, 정장 코트, 피트한 블라우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캐주얼 재킷, 캐주얼 코트, 점퍼	블레이저 재킷, 기타 재킷, 캐주얼점퍼, 등상용 점퍼, 파카, 캐주얼 코트	가슴둘레	키	
	셔츠	남방 셔츠, 캐주얼 셔츠, 캐주얼 블라우스	가슴둘레		
	편물제 상의류	가디건, 스웨터, 풀어버, 폴로티, 니트티, 터틀넥티, 티셔츠, 니트조끼	가슴둘레		
하의	바지	정장 바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캐주얼 바지	허리둘레		
	스커트	정장 스커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캐주얼 스커트	허리둘레		
상하 연결의	코트	오버코트, 탑코트, 반코트, 트렌치코트, 레인코트	가슴둘레	키	
	원피스	정장원피스, 드레스, 피트한 점퍼 스커트, 피트한 오버롤	가슴둘레	키	
		캐주얼 원피스, 오버롤	가슴둘레	키	
	가운	실험가운, 나이트가운, 기타 가운	가슴둘레	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웨딩드레스의 치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웨딩드레스 특성에 맞는 사이즈 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웨딩드레스 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이즈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객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상반신 사이즈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치수설계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7> 연구절차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웨딩드레스 샵의 조사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아현동과 청담동 일대의 웨딩드레스 샵으로 하였으며 웨딩드레스의 제작 수가 최소 100벌 이상인 곳을 선정하여 웨딩드레스 제작시의 상반신 기본 치수들을 조사하였다. 웨딩드레스 샵의 치수 실태 조사는 제작된 설문지에 대해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방식과 설문을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디자인 및 패턴실 실장급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07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총 2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0군데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웨딩드레스 고객 조사 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본 설문지 문항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 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가 모호하게 느끼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 까지 설문지 250장을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설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7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항목

웨딩드레스 샵의 설문지 구성은 박진희, 박희영, 오설영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생산하는 기본 치수 및 내용과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웨딩드레스 생산 방

식과 비율에 관한 4문항, 상반신 사이즈 기본 치수에 관한 1문항, 피팅에 관한 5문항, 사이즈 측정에 관한 1문항,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별 특성에 관한 5문항, 웨딩드레스 샵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웨딩드레스 고객에 대한 설문지 구성은 박진희, 김계형, 박희영, 오설영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8문항과 응답자의 체형특성 1문항과 웨딩드레스 특성과 디자인 유형에 관한 선호도 6문항과, 구매에 관한 선호도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웨딩드레스 샵의 특성에 관해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상반신 사이즈 체계 구분을 위하여 국내 석, 박사 학위 논문 및 학회지 논문, 성인 여성복 사이즈와 관련된 석, 박사 논문 및 학회지 논문, 인터넷 자료, 웨딩드레스 샵의 설문지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에 관해 살펴보고 연관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SPSS 13.0)으로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 및 디자인 유형

현재 국내 웨딩드레스 샵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이즈의 항목과 치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20군데의 웨딩드레스 샵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웨딩드레스 샵의 일반적 특징

(1) 생산방식

웨딩드레스 생산방식은 크게 맞춤구매와 대여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맞춤구매는 고객의 사이즈와 기호에 맞게 주문제작을 통하여 당사자가 소장하는 형태이고 대여 형식은 모든 형태의 웨딩드레스 샵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 선택을 통해 대여하여 예식 때 착용한 후 다시 반납하는 것이다.

웨딩드레스 생산방식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형식과 대여형식의 비율은 대여형식이 55%, 대여형식과 구매형식을 병행하는 웨딩드레스 샵이 45%로 나타났다. 특히 웨딩드레스 샵이 구매형식만 한다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이 병행이나 대여형식으로 나타나, 서양의 파티문화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은 문화적 환경에서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에 단 한번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위한 예복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에 의한 맞춤형식 보다는 대여형식으로 착용되는 것이 더욱 일반화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여형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대여점에서 사입(buying)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에 고객이 착용을 통해 결정하는 드레스를 기본적인 가봉을 통해 대여해주는 샘플대여이고, 둘째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제작(order-made) 형식으로 주문하고 전문점에서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을 사입이나 주문제작을 통해 대여해 주는 맞춤대여이다¹¹⁹⁾

대여형식을 하고 있는 샵의 맞춤대여와 샘플대여의 생산방식은 4군데의 샵이 맞춤대여를 100%하였고, 4군데 샵은 샘플대여를 100%하였으며 맞춤대여와 샘플대여의 병행하는 샵은 12곳의 샵이 있었다(표 8). 맞춤대여와 샘플대여의 평균 비율은 맞춤대여가 30.4%, 샘플 대여가 약 69.6%의 비율로 나타나 맞춤 대여 보다는 샘플 대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높고 일반적으로 55사이즈 미만이나 77사이즈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주문제작을 통해 맞춤대여의 형식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대의 고객들에게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우리나라 여성의 기본사이즈인 55사이즈와 66사이즈에서 선호¹²⁰⁾되는 샘플대여의 형식이 맞춤대여의 형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대여 형식 중 생산 방식의 비율

생산방식	N	()=%
맞춤대여 100%	4	(20.0)
샘플대여 100%	4	(20.0)
맞춤과 샘플대여의 병행	12	(60.0)
계	20	(100.0)

(2) 웨딩드레스 샵의 피팅

피팅은 디자인 측면만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입었을 때 느끼게 될 맞춤새와 착용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¹²¹⁾. 웨딩드레스 피팅에

119) 유혜진, “웨딩드레스점포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p.4.

120) 박희영, op. cit., p.15.

121) 오설영, op. cit., p.29.

관해서 피팅 모델의 선정기준과 체형 및 연령 특성을 살펴 보았다.

웨딩드레스 샵들은 디자이너 혹은 사내 사원 중에서 피팅 모델을 하는 경우가 70.83%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피팅하는 경우가 20.83%로 각각 나타났다. 대부분 직업적 피팅 모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타 피팅 방법으로 바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팅 모델 선정시 체형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중심의 평균적인 체형 선호도가 80%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체형이 10%, 브랜드 컨셉에 맞는 체형이 10%순으로 조사되었다. 피팅에 대한 샵의 견해는 브랜드나 디자인 중심 보다는 고객의 체형을 반영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표 9).

<표 9> 피팅 모델의 선정 시 선호도

()=%

내용	N	()=%
디자인 중심	2	(10.0)
고객 중심	16	(80.0)
브랜드 중심	2	(10.0)
계	20	(100.0)

피팅 모델의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 연령대는 한국 갤럽의 조사¹²²⁾에 따르면 여성의 결혼 연령대는 28세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27세 21.0%, 25세이하 18.4%, 30세 17.1%로 나타났다.

<표 10>은 20대와 30대의 여성의 평균 체형¹²³⁾과 웨딩드레스 피팅 모델의 체형이다.

122) <http://www.gallup.co.kr/main.asp>

123) <http://www.gallup.co.kr/main.asp>

<표 10> 각 부위의 평균값

(단위 : cm, 체중 단위: Kg)

측정항목	나이		18~29세		30세		피팅 모델	
	나이	18~29세	30세	18~29세	30세	피팅 모델	피팅 모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장		159.8	4.5	157.7	4.5	164.63	1.65	
엉덩이둘레		91.6	4.1	91.7	4.4	88.14	1.06	
체중		54	6.0	56	6.0	50.50	1.57	
등길이		38.2	2.1	38.5	2.1	21.00	9.55	
가슴둘레		82.5	4.5	85.5	4.6	82.35	1.16	
소매길이		53.4	2.2	52.7	2.1	53.34	2.35	
허리둘레		68.3	5.2	73.1	6.1	64.24	1.20	

30대 이상의 여성은 연령의 증가로 인해 20대 초·중반의 체형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도, 업무의 편이를 위해서 고객의 체형적 특성을 반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젊은 여성을 피팅 모델로 선택하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설계 시 기준이 되는 피팅 모델의 신체치수와 연령대 여성의 평균치수의 차이가 큰 것은 웨딩드레스의 치수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파악된다. 따라서, 고객의 체형에 더 근접하는 피팅 모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고객 상반신 사이즈 측정 항목

웨딩드레스 샵에서 고객 사이즈 측정 시 고객 상반신 사이즈 측정항목은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어깨너비, 등길이의 순으로 가장 많이 측정하였다(표 11). 웨딩드레스 제작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어깨너비¹²⁴⁾와 같았다. 즉 성인 여성복과 비교할 때 상의류 ‘가슴둘레-엉덩이둘레’, 하의류 ‘허리둘레-엉덩이둘레’를 조합한 치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4) 박희영, op. cit., p.22.

영덩이둘레는 성인 여성복의 상의류와 하의류에서 중요시 하는 치수이지만 대부분의 웨딩드레스가 A 라인 이상의 스커트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영덩이둘레로 인해 디자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고객 상반신 사이즈 측정 항목

()=%

구 분	N	
가슴둘레	17	(18.6)
아래가슴둘레	5	(5.4)
허리둘레	16	(17.5)
어깨너비	10	(10.9)
뒷폭	6	(6.5)
등길이	9	(9.8)
앞길이	2	(2.2)
유두길이	5	(5.4)
유두간격	5	(5.4)
앞폭	7	(7.6)
팔꿈치길이	2	(2.2)
소매길이	6	(6.5)
소매산	1	(1.1)

2)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 분석 및 사이즈 체계 설정

웨딩드레스를 제작할 때 하는 기본적으로 쓰이는 상반신 기본 치수는 샘플대여와 맞춤대여 모두 동일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 치수는 허리둘레와 가슴둘레로 조사되었다.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기본 치수 설정으로 만들어진 패턴의 그레이딩(grading)을 통해 사이즈별로 제작하는데 사이즈 분류가 세분화된 성인 여성복에 비해 웨딩드레스는 기본 사이즈의 제작이 한 사이즈로 통일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각 항목별 상반신 기본 치수들을 살펴보면 가슴둘레는 84cm~91cm까지로 나타났고 아래 가슴둘레는 84cm~89cm까지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기본 치수는 66cm~69cm까지 나타났으며 목둘레는 36cm~38cm, 등길이는 38cm~40cm로 나타났다. 너비 항목의 경우는 어깨너비는 37cm~40cm까지 나타났고 유두간격은 16cm~18cm로 조사되었다. 앞품은 32cm~33cm까지로 나타났으며 뒷품은 32cm~36cm로 나타났다. 이에 성인 여성복은 앞품은 31cm~34cm, 뒷품은 33cm~36cm로 나타났는데¹²⁵⁾ 웨딩드레스는 성인 여성복에 비해 특별한 상황을 위한 예복으로써 활동의 폭이 좁고 피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품과 뒷품의 차이가 성인 여성복에 비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항목으로는 웨딩드레스 상반신의 뒷중심 시점 여유 분량이 있는데 뒷중심 시점의 여유량은 8cm에서 10cm까지로 나타났다. 대여 형식을 하는 우리나라의 웨딩드레스는 뒷중심에 시점의 여유량을 두어 착용한 상태에서 입체가봉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의 착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분량이 겹쳐져 지퍼가봉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둔탁한 느낌과 함께 고객에게 착용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웨딩드레스 샵의 웨딩드레스를 생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반신 기본 치수의 가슴 둘레의 평균은 86cm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의 평균은 66cm, 등길이는 38cm로 분석 되었다(표 12).

125) 한규선, “자켓원형패턴 차이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국내여성복 브랜드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6), p.14.

<표 12> 상반신 기본 치수 범위

신체 치수 항목		치수 범위(cm)
둘레	① 가슴둘레	84 ~ 91
	② 아래가슴둘레	84 ~ 89
	③ 허리둘레	66 ~ 69
	④ 목둘레	36 ~ 38
길이	① 등길이	38 ~ 40
	② 앞길이	35 ~ 43
	③ 유두길이	24 ~ 26
	④ 소매산	14 ~ 15
너비	① 어깨너비	37 ~ 40
	② 유두간격	16 ~ 18
	③ 뒷폭	32 ~ 36
	④ 앞폭	32 ~ 33
기타	뒷중심 시접 여유 분량	좌, 우 각 8 ~ 10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 중 가장 중요한 치수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들 수 있다. 일반 성인 여성복의 상의류가 키를 제외하고는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다른점이다. 대여 형식을 하는 우리나라의 웨딩드레스는 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데 다양한 키에 맞춰 대여를 해야 하는 점과 레이스의 스킵으로 이루어진 스커트의 특성 등에 의해 구두의 굽높이로 조절하는 등의 임시적 보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엉덩이둘레는 대부분의 웨딩드레스가 A라인 이상의 스커트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엉덩이둘레로 인해 디자인의 제

약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웨딩드레스는 피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제 착용 시에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 여유량이 전혀 없으며 단지 다양한 사이즈의 착용을 위한 뒷중심 부분의 여유량만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르다.

성인 여성복에서는 대부분이 사이즈 44, 55, 66, 77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표 13)¹²⁶⁾, 웨딩드레스는 소장용이 아닌 대부분이 대여상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이즈 체계는 웨딩드레스 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양한 디자인을 소장하는데 한계를 줄 수 있다. 경제적 지출을 막고 재고 부담과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 4가지의 분류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3가지 분류에는 웨딩드레스 각각의 사이즈 호칭으로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와 혼동을 없애기 위해 ‘Wedding dress’의 약자로 ‘W’를 각각의 호칭 앞에 삽입하여 가장 작은 사이즈는 ‘W44’, 보통 사이즈는 ‘W55’, 큰 사이즈는 ‘W66’으로 분류하였다. ‘W55’는 웨딩드레스 샵의 상반신 기본치수인 가슴둘레의 평균치 86cm로 설정하고 또한 허리둘레도 평균치인 66cm로 설정했다. 사이즈 ‘W55’를 기준으로 가슴둘레는 6cm의 등간을 허리둘레는 5cm의 등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W44’는 가슴둘레 80cm와 허리둘레 61cm로 설정되었으며 ‘W66’은 가슴둘레 92cm와 허리둘레 71cm로 설정되었다.

뒷중심 시접의 여유량은 대여 형식이라는 웨딩드레스 특성상 좀 더 넓은 사이즈의 수용폭과 완전한 지퍼가봉을 위해 일정량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웨딩드레스는 과도한 시접 분량이 외관상의 둔탁함과 고객의 불편함을 주고 등 부위의 디자인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각각의 사이즈별 안락한 피트성과 각 사이즈 사이의 고객들의 착용 가능 사이즈 수용폭을 주기 위해 좌 우 각 5cm로 설정하였다(표 14).

126) 박진희, op. cit., p.33.

<표 13>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치수 분포 범위

호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44	81 ~ 82	61 ~ 64	86 ~ 88
55	84 ~ 86	63,5 ~ 67	89 ~ 92
66	88 ~ 94	67 ~ 73	94 ~ 99
77	94 이상	70 이상	100 이상

<표 14> 웨딩드레스 상반신 사이즈 체계 분류

호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뒷중심 시접 여유량
W44	80cm	61cm	좌, 우 각5cm
W55	86cm	66cm	좌, 우 각5cm
W66	92cm 이상	71cm 이상	좌, 우 각5cm

3)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디자인 유형 범위

본 연구에서 실루엣 분류로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을 프린세스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버슬 실루엣, A 라인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으로 분류하였다. 웨딩드레스 샵에게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어울리는 디자인 유형을 조사한 결과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실루엣 유형은 엠파이어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실루엣 유형은 프린세스 실루엣, A 라인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다.

넥라인은 라운드 넥라인, 보트 넥라인, 오프 더 숄더 넥라인, 브이 넥

크라인, 스케어 네크라인,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탱크탑 네크라인, 캐미솔 네크라인, 홀터 네크라인으로 분류하였다. 웨딩드레스 샵에게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어울리는 네크라인 유형을 조사한 결과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네크라인 유형은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탱크탑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브이 네크라인, 탱크탑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실크로 분류하였다.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어울리는 소재를 조사한 결과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소재는 레이스, 공단, 벨벳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공단, 레이스, 실크 순으로 나타났다.

슬리브는 슬리브리스, 셸 인 슬리브, 캡 슬리브, 벨 슬리브, 툴립 슬리브, 턱트 슬리브, 퍼프 슬리브, 벌룬 슬리브로 분류하였다.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유형은 퍼프 슬리브, 툴립 슬리브, 슬리브리스, 캡 슬리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슬리브리스, 벨 슬리브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S 사이즈 고객에 비해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유형은 대부분 심플하고 체형을 드러내지 않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웨딩드레스 샵에게 S 사이즈 고객은 성인 여성복의 44사이즈 고객으로, L 사이즈 고객은 성인 여성복의 66사이즈 고객으로 조사하여 앞에서 제안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인 가장 작은 사이즈 'W44' 에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큰 사이즈인 'W66' 에는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표 15>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에 따른 디자인 유형

디자인 사이즈	실루엣 유형	넥라인 유형	소재 유형	슬리브 유형
사이즈 W44	크리놀린 머메이드 엠펙라이어	보트 오프 더 숄더 스위트 하트 하이 탱크탑 홀터	공단 레이스 벨벳	슬리브리스 셀 인 캡 튤립 퍼프 별론
사이즈 W55	프린세스 크리놀린 머메이드 버슬 A 라인 엠펙라이어	라운드 보트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스위트 하트 하이 탱크탑 캐미솔 홀터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실크	슬리브리스 셋인 캡 벨 튤립 덕트 퍼프 별론
사이즈 W66	프린세스 A 라인 엠펙라이어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스위트 하트 탱크탑 캐미솔 홀터	공단 레이스 실크	슬리브리스 셀 인 캡 벨 튤립 퍼프

2. 고객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고객의 특성을 사이즈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유형과 특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디자인 선호도

응답자 전체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연령대는 20대가 83.09%(172명), 30대가 15.94%(33명)로 20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7.15%(139명), 대학원이 26.57%(55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과 전문직이 각각 26.57%(55명), 26.09%(54명)로 나타났다.

수입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면, 가계 월 평균 총수입은 300~500만원 미만이 29.95%(62명),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이 각각 23.19%(48명)로 함께 나타났다. 자신의 월 평균 수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100~300만원 미만은 63.29%(131명), 없음은 13.04%(27명), 50만원 미만과 50~100만원 미만은 각각 8.21%(17명)로 함께 나타났다. 응답자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만이 수입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월 평균 의복 지출비에 관한 질문에서는 10~25만원 미만이 43.00%(89명), 10만원 미만이 27.54%(57명)로 나타났고 25~40만원 미만은 20.77%(43명)로 나타났다.

<표 16> 일반적 특성 분석

()=%

구분	내용	N	
연령	20대	172	(83.09)
	30대	33	(15.94)
	무응답	2	(0.97)
학력	고졸	12	(5.80)
	대졸	139	(67.15)
	대학원	55	(26.57)
	무응답	1	(0.48)
직업	사무관리	49	(23.67)
	전문직	54	(26.09)
	서비스직	12	(5.80)
	학생	55	(26.57)
	기타	36	(17.39)
	무응답	1	(0.48)
가계의 총수입	100만원 미만	4	(1.93)
	100-300만원 미만	34	(16.43)
	300-500만원 미만	62	(29.95)
	500-700만원 미만	48	(23.19)
	700만원 이상	48	(23.19)
	무응답	11	(5.31)
	없음	27	(13.04)
자신의 수입	50만원 미만	17	(8.21)
	50-100만원 미만	17	(8.21)
	100-300만원 미만	131	(63.29)
	300-500만원 미만	10	(4.83)
	700만원 이상	1	(0.48)
	무응답	4	(1.93)
의복 지출비	10만원 미만	57	(27.54)
	10-25만원 미만	89	(43.00)
	25-40만원 미만	43	(20.77)
	40-70만원 미만	14	(6.76)
	70만원 이상	1	(0.48)
	무응답	3	(1.45)
계		207	(100.00)

웨딩드레스 구매 선호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적인 웨딩드레스 구매 방법은 맞춤대여는 69.08%(143명), 맞춤구매가 17.39%(36명), 샘플대여는 13.04%(27명)으로 맞춤대여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의 희망 구매 가격은 50~100만원 미만은 37.20%(77명), 100~150만원 미만은 26.57%(55명), 150~200만원 미만은 16.91%(35명), 50만원 이하는 9.18%(19명), 200만원 이상은 6.76%(14명)으로써 50~100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표 17> 이상적인 웨딩드레스 구매 방법 및 가격

구분	내용	N	()=%
구매 방법	맞춤구매	36	(17.39)
	맞춤대여	143	(69.08)
	샘플대여	27	(13.04)
	무응답	1	(0.48)
가격	50만원 이하	19	(9.18)
	50-100만원 미만	77	(37.20)
	100-150만원 미만	55	(26.57)
	150-200만원 미만	35	(16.91)
	200만원 이상	14	(6.76)
	무응답	7	(3.38)
계		207	(100.00)

웨딩드레스가 지녀야 할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웨딩드레스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심미성은 53.14%(110명), 순결성이 25.12%(52명), 정숙성은 11.59%(24명), 유행성은 6.28%(13명), 기타는 3.86%(8명)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딩드레스의 특

성은 심미성으로 나타났는데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유형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48.89% (176명), 네크라인은 19.17%(69명), 스커트는 8.89%(32명), 소재는 8.61%(31명), 장신구는 7.78%(28명), 소매는 3.33%(12명), 색상은 3.06%(11명), 기타는 0.28%(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유형으로는 대부분이 전체적인 실루엣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웨딩드레스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과 선호 디자인

구분	내용	N	()=%
특성	순결성	52	(25.12)
	정숙성	24	(11.59)
	유행성	13	(6.28)
	심미성	110	(53.14)
	기타	8	(3.86)
	계	207	(100.00)
디자인	전체적인 실루엣	176	(48.89)
	네크라인	69	(19.17)
	소매	12	(3.33)
	소재	31	(8.61)
	스커트	32	(8.89)
	색상	11	(3.06)
	장신구	28	(7.78)
	기타	1	(0.28)
	계	360	(100.00)

또한 웨딩드레스가 지녀야 할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입고 싶은 실루엣은 크리놀린 실루엣이 42.51%(88명), 프린세스 실루엣이 23.19%(48명), A 라인 실루엣 17.39%(36명), 머메이드 실루엣 19명(9.18%), 엠파이어 실루엣 5.31%(11명), 버슬 실루엣

2.42%(5명)로 나타났다. 크리놀린 실루엣이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풍성한 느낌의 웨딩드레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입고 싶은 네프라인 유형은 오프 더 숄더 네프라인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탑이 26.57%(55명), 홀터 네프라인은 10.14%(21명), 스위트 하트 네프라인은 6.28%(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를 선택 시 목을 감싸는 것보다는 어깨를 드러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네프라인은 현대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 노출의 트렌드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슬리브 유형은 캡 슬리브가 30.43%(63명)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슬리브리스가 27.54%(57명), 퍼프 슬리브는 11.11%(23명), 튜립 슬리브는 8.21%(17명), 셀 인 슬리브는 6.76%(14명), 벨 슬리브는 5.31%(11명), 턱트 슬리브는 4.83%(10명), 벌룬 슬리브 3.8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소매 디자인 유형 또한 현대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 노출에 관한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소재는 실크가 48.31%(100명)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이스가 25.60%(53명), 공단이 21.74%(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유형별 선호도

()=%

구분	내용	N
실루엣	프린세스	48 (23.19)
	크리놀린	88 (42.51)
	머메이드	19 (9.18)
	버슬	5 (2.42)
	A라인	36 (17.39)
	엠펙이어	11 (5.31)
네크라인	라운드	3 (1.45)
	보트	10 (4.83)
	오프 더 숄더	74 (35.75)
	브이	9 (4.35)
	스퀘어	8 (3.86)
	스위트 하트	13 (6.28)
	하이	8 (3.86)
	탱크탑	55 (26.57)
	캐미솔	4 (1.93)
	홀터	21 (10.14)
	무응답	2 (0.97)
소매	슬리브리스	57 (27.54)
	셋-인	14 (6.76)
	캡	63 (30.43)
	벨	11 (5.31)
	튜올립	17 (8.21)
	턱트	10 (4.83)
	퍼프	23 (11.11)
	별론	8 (3.86)
	무응답	4 (1.93)
소재	공단	45 (21.74)
	노방	4 (1.93)
	레이스	53 (25.60)
	망사	3 (1.45)
	벨벳	2 (0.97)
	실크	100 (48.31)
계	207 (100.00)	

2) 고객의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고객의 평상시 착용하는 성인 여성복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실루엣의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해 본 결과 $p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는 <표 20>과 같다. S 사이즈 고객은 A 라인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고, L 사이즈 고객은 크리놀린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다. M 사이즈 고객은 다른 집단보다 프린세스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크리놀린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고 두 번째는 프린세스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표 20>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실루엣 선호 유형

	S	M	L	계	N
프린세스	7	24	17	48	Column % Row %
	14.29	27.91	23.61		
	14.58	50.00	35.42	100.00	
크리놀린	14	34	40	88	Column % Row %
	28.57	39.53	55.56		
	15.91	38.64	45.45	100.00	
머메이드	7	8	4	19	Column % Row %
	14.29	9.30	5.56		
	36.84	42.11	21.05	100.00	
버슬	1	1	3	5	Column % Row %
	2.04	1.16	4.17		
	20.00	20.00	60.00	100.00	
A 라인	18	14	4	36	Column % Row %
	36.73	16.28	5.56		
	50.00	38.89	11.11	100.00	
엠펙이어	2	5	4	11	Column % Row %
	4.08	5.81	5.56		
	18.18	45.45	36.36	100.00	
계	49	86	72	207	Column % Row %
	100.00	100.00	100.00	100.00	

Chi-square=28.32^{***} (df=10)

*** $p < 0.001$

또한 고객의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넥라인의 순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는 <표 21>과 같다. 각 칸의 기대 빈도가 5미만의 칸이 20% 이상이므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오프 더 숄더 넥라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두 번째는 탱크탑을 선호하였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선호하는 넥라인은 전반적인 노출 패션의 유행 경향이 큰 영향을 미쳐 탱크탑과 오프 더 숄더에 많은 선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슬리브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는 <표 22>와 같다. S 사이즈 고객과 M 사이즈 고객은 슬리브리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L 사이즈 고객은 캡 슬리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소매 디자인 유형 또한 현대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 노출에 관한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며 L 사이즈 고객은 S 사이즈나 M 사이즈에 비해 팔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신체사이즈별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소재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는 <표 23>과 같다. 각 칸의 기대 빈도가 5미만의 칸이 20% 이상이므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실크를 선호하였으며 두 번째는 레이스를 선호하였다. 웨딩드레스에 있어서 실크의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와 레이스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많은 선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넥라인 선호 유형

	S	M	L	계	Column % Row %	N %
라운드	0 0.00 0.00	1 1.18 33.33	2 2.82 66.67	3 100.00		
보트	2 4.08 20.00	4 4.71 40.00	4 5.63 40.00	10 100.00		
오프 더 숄더	13 26.53 17.57	27 31.76 36.49	34 47.89 45.95	74 100.00		
브이	4 8.16 44.44	2 2.35 22.22	3 4.23 33.33	9 100.00		
스퀘어	4 8.16 50.00	1 1.18 12.50	3 4.23 37.50	8 100.00		
스위트하트	2 4.08 15.38	4 4.71 30.77	7 9.86 53.85	13 100.00		
하이	5 10.20 62.50	2 2.35 25.00	1 1.41 12.50	8 100.00		
탱크탑	10 20.41 18.18	31 36.47 56.36	14 19.72 25.45	55 100.00		
캐미솔	0 0.00 0.00	3 3.53 75.00	1 1.41 25.00	4 100.00		
홀터	9 18.37 42.86	10 11.76 47.62	2 2.82 9.52	21 100.00		
계	49 100.00	86 100.00	72 100.00	207 100.00		
Chi-square=35.67						

**p<0.01

<표 22>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슬리브 선호 유형

	S	M	L	계	Column %	Row %	N
슬리브리스	20 41.67 35.09	28 33.33 49.12	9 12.68 15.79	57 100.00			
셀 인	5 10.42 35.71	6 7.14 42.86	3 4.23 21.43	14 100.00			
캡	14 29.17 22.22	20 23.81 31.75	29 40.85 46.03	63 100.00			
벨	2 4.17 18.18	6 7.14 54.55	3 4.23 27.27	11 100.00			
틀립	4 8.33 23.53	7 8.33 41.18	6 8.45 35.29	17 100.00			
턱트	2 4.17 20.00	5 5.95 50.00	3 4.23 30.00	10 100.00			
퍼프	0 0.00 0.00	10 11.90 43.48	13 18.31 56.52	23 100.00			
벌룬	1 2.08 12.50	2 2.38 25.00	5 7.04 62.50	8 100.00			
계	49 100.00	86 100.00	72 100.00	207 100.00			
Chi-square=27.54* (df=14)							

*p<0.5

<표 23> 사이즈에 따른 웨딩드레스 소재 선호 유형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계	Column % Row %	N %
공단	17 34.69 37.78	16 18.60 35.56	12 16.67 26.67	45	100.00	
노방	2 4.08 50.00	2 2.33 50.00	0 0.00 0.00	4	100.00	
레이스	11 22.45 20.75	16 18.60 30.19	26 36.11 49.06	53	100.00	
망사	1 2.04 33.33	1 1.16 33.33	1 1.39 33.33	3	100.00	
벨벳	0 0.00 0.00	2 2.33 100.00	0 0.00 0.00	2	100.00	
실크	18 36.73 18.00	49 56.98 49.00	33 45.83 33.00	100	100.00	
계	49 100.00	86 100.00	72 100.00	207	100.00	
Chi-square=18.37						

*p<0.5

<표 24>는 앞의 내용을 참고하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따라 고객의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여 제안한 것이다

<표 24>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 분석

디자인 사이즈	실루엣 유형	넥라인 유형	소재 유형	소매 유형
사이즈 W44	프린세스 크리놀린 머메이드 A 라인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하이 탱크탑 홀터 라운드	공단 레이스 실크	슬리브리스 셋인 캡 튠업
사이즈 W55	프린세스 크리놀린 머메이드 버슬 A 라인 엠파이어	보트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스위트하트 하이 탱크탑 캐미솔 홀터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실크	슬리브리스 셀 인 캡 벨 튠업 턱트 퍼프 벌룬
사이즈 W66	프린세스 크리놀린	보트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스위트하트 탱크탑	공단 레이스 실크	슬리브리스 캡 튠업 퍼프 벌룬

<표 25>는 <표 15>의 웨딩드레스 샵에서의 디자인 유형과 <표 24>의 고객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여 웨딩드레스 샵과 고객이 선호하는 공통된 디자인을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따라 제안하였다.

<표 25>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따른 디자인 유형

디자인 사이즈	실루엣 유형	넥라인 유형	소재 유형	슬리브 유형
사이즈 W44	크리놀린 머메이드	오프 더 숄더 하이 탱크탑 홀터	공단 레이스	슬리브리스 셀 인 캡 튤립
사이즈 W55	프린세스 크리놀린 머메이드 버슬 A 라인 엠포이어	라운드 보트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스위트하트 하이 탱크탑 캐미솔 홀터	공단 노방 레이스 망사 벨벳 실크	슬리브리스 셋인 캡 벨 튤립 턱트 퍼프 별륜
사이즈 W66	프린세스	오프 더 숄더 스퀘어 브이 스위트하트 탱크탑	공단 레이스 실크	슬리브리스 캡 벨 튤립 퍼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웨딩드레스의 일반적 특징과 사이즈 체계에 관한 것으로 결혼 적령기인 여성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이미지와, 디자인 요소, 장식적 요소 등을 알아보고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웨딩드레스 샵과 고객들의 웨딩드레스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군데의 웨딩드레스 샵을 대상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이즈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성인여성 207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별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구매형식과 대여형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여형식 중에서도 샘플대여의 형식이 맞춤대여의 형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매형식만 한다는 웨딩드레스 샵은 없었다. 대부분이 병행이나 대여형식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웨딩문화의 고유 특성상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에 단 한번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위한 예복으로 인식되어서 주문에 의한 구매형식보다는 대여형식으로 착용되는 것이 더욱 일반화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웨딩드레스의 피팅 모델은 브랜드나 디자인 중심보다는 고객 중심의 체형을 반영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며 내부에서 선정하였다. 웨딩드레스 샵의 피팅 모델의 연령과 체형이 결혼적령기 실제 고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 대한 연령과 체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고객 사이즈 측정 시 고객 상반신 사이즈 측정항목은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어깨너비, 등길이의 순으로 가장 많이 측정하였으며 웨딩드레스 제작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어깨너비와 동일하였다. 성인 여성복 상의류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 하의류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조합한 치수로 엉덩이둘레는 성인 여성복의 상의류와 하의류에서 중요시 하는 치수이지만 대부분의 웨딩드레스에서는 A 라인 이상의 스커트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엉덩이 둘레로 인해 디자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웨딩드레스를 제작할 때 쓰이는 상반신 기본 치수는 허리둘레와 가슴둘레로 조사되었다.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기본 치수 설정으로 만들어진 패턴의 그레이딩을 통해 사이즈별로 제작하는데 사이즈 분류가 세분화된 성인 여성복에 비해 웨딩드레스는 기본 사이즈의 제작이 한 사이즈로 통일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웨딩드레스를 생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반신 기본 치수의 가슴 둘레의 평균은 86cm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의 평균은 66cm, 등길이는 38cm로 분석 되었다.

성인 여성복에서는 대부분이 사이즈 44, 55, 66, 77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웨딩드레스는 경제적 지출을 막고 재고 부담과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 4가지의 분류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3가지 분류에는 웨딩드레스 각각의 사이즈 호칭으로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와 혼동을 없애기 위해 'Wedding dress'의 약자로 'W'를 각각의 호칭 앞에 넣어서 가장 작은 사이즈는 'W44', 보통 사이즈는 'W55', 큰 사이즈는 'W66'으로 분류하였다. 'W55'는 웨딩드레스 샵의 상반신 기본치수인 가슴둘레의 평균치 86cm로 설정하고 또한 허리둘레도 평균치인 66cm로 설정했다. 사이즈 'W55'를 기준으로 가슴둘레는 6cm의 등간을 허리둘레는 5cm의 등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W44'는 가슴둘레 80cm와 허리둘레 61cm로 설정하고 'W66'는 가슴둘레 92cm와 허리둘레 71cm로 설정하였다. 뒷중심 시접의 여유량은 대여 형식이라는 웨딩드레스 특성상 좀 더 다양한 사이즈의 수용폭과 완전한 지퍼가봉을 위해 일정량이 꼭 필요하여 좌, 우 각 5cm로 설정하였다.

3. 웨딩드레스 샵에게 고객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어울리는 실루엣 유형을

조사한 결과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실루엣 유형은 엠파이어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프린세스 실루엣, A 라인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다.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네크라인 유형은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탱크탑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브이 네크라인, 탱크탑 순으로 나타났다.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소재는 레이스, 공단, 벨벳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공단, 레이스, 실크 순으로 나타났다.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슬리브 유형은 퍼프 슬리브, 튜립 슬리브, 슬리브리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L 사이즈 고객은 슬리브리스, 벨 슬리브 순으로 나타났다.

S 사이즈 고객에 비해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유형은 대부분 심플하고 체형을 드러내지 않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샵에게 S 사이즈 고객은 성인 여성복의 44사이즈 고객으로, L 사이즈 고객은 성인 여성복의 66사이즈 고객으로 조사하여 앞에서 제안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인 가장 작은 사이즈 ‘W44’ 에 S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큰 사이즈인 ‘W66’ 에는 L 사이즈 고객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4. 결혼 적령기 여성의 웨딩드레스 구매 방법으로는 맞춤형 방법 선호하였고 가격은 50~100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 하였다.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은 심미성이 있고, 디자인 유형은 전체적인 실루엣 유형을 중요시 하였다. 웨딩드레스 디자인 중 실루엣 유형에 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풍성한 느낌의 웨딩드레스인 크리놀린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다. 네크라인은 오프 더 숄더와 탱크탑 순으로 선호하였는데 현대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 노출의 트렌드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슬리브는 캡 슬리브와 슬리브리스를 선호하였고, 소재는 실크와 레이스를 선

호하였다. 웨딩드레스에 있어서 실크의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와 레이스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많은 선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고객의 평상시 착용하는 성인 여성복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실루엣의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 사이즈 고객은 A 라인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고, L 사이즈 고객은 크리놀린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네크라인은 전체적으로 오프 더 숄더 네크라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두 번째는 탱크탑을 선호하였다. 웨딩드레스 선택 시 선호하는 네크라인은 전반적인 노출 패션의 유행 경향이 큰 영향을 미쳐 탱크탑과 오프 더 숄더에 많은 선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슬리브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 사이즈 고객은 슬리브리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L 사이즈 고객은 캡 슬리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슬리브 또한 현대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 노출에 관한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며 L 사이즈 고객은 S 사이즈에 비해 팔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재는 전체적으로 실크를 선호하였으며 두 번째는 레이스를 선호하였다. 앞에서 제안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인 가장 작은 사이즈 'W44' 에 S 사이즈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큰 사이즈인 'W66' 에는 L 사이즈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6. 웨딩드레스 샵에서 디자인 유형에 따라 고객의 사이즈별로 어울리는 디자인과 실제 고객들의 사이즈별 디자인 선호도와는 차이가 나타났다.

실루엣의 경우 웨딩드레스 샵은 S 사이즈 고객들한테 엠파이어 실루엣을 추천하지만 실제 고객들을 조사한 결과 S 사이즈 고객들은 크리놀린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L 사이즈 고객들에 대해서는 웨딩드레스 샵은 프린세스 실루엣을 추천

하지만, 실제 고객은 크리놀린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네크라인의 경우 S 사이즈 고객들한테 오프 더 솔더 네크라인과 하이 네크라인을 추천하고 S 사이즈 고객은 오프 더 솔더와 탱크탑을 선호하였다. L 사이즈 고객들에 대해서는 브이 네크라인과 탱크탑을 추천하고 실제 고객은 웨딩드레스 샵과는 달리 오프 더 솔더 네크라인과 탱크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경우 S 사이즈 고객들에게 레이스를 추천하였고 실제 고객은 실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 사이즈 고객들에 대해서는 공단을 추천하였고 실제 고객은 실크를 선호하였다.

슬리브의 경우 S 사이즈 고객들에게 퍼프 슬리브를 추천하였으며 실제 고객은 슬리브리스를 선호하였다. L 사이즈 고객들에 대해서는 슬리브리스를 추천하였고 실제 고객은 캡 슬리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를 제안하고 웨딩드레스 샵에서 고객 사이즈 별 어울리는 디자인 유형과 실제 고객의 사이즈에 따라 이들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을 조사하여 웨딩드레스 사이즈 체계에 따라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웨딩드레스 관련 샵에서는 웨딩드레스 제작 시 실제 고객의 체형에 가깝도록 전개하며 체계적인 사이즈 구분으로부터 고객의 안락감과 실제 고객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특성과, 디자인 유형을 파악하여 웨딩드레스 생산 및 디자인 등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웨딩드레스 샵의 수가 20군데로 국한되어 있으며 서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웨딩드레스 샵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제 고객 연구 대상자들도 서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을 다양한 지역의 웨딩드레스 샵 등으로의 확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웨딩드레스는 소장용이 아닌 대부분이 대여 상품이기에 때문에 연구자

의 3단계의 사이즈 분류는 웨딩드레스 샵에게 경제적 부담과 다양한 디자인을 소장하는데 한계를 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웨딩드레스를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하는 이유는 고객이 웨딩드레스를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논문

고지현, “미씨브랜드의 사이즈에 대한 커버율 및 착의 만족도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5.

김계형, “우리나라 여성의 웨딩드레스 선호도 비교 : 1980~2001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영선, “예식문화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문윤경,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유정, “중년 여성복업체의 맞춤형 생산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진희, “성인 여성의 체형 특성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정은, “현대 웨딩드레스의 유행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희영,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변진섭, “웨딩드레스의 유행성 및 유행인지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미연,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와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은정,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과 감성이미지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성수, 오면재, 서경희, “웨딩드레스 선정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제23권 4호, 1999, pp.593~600.
- 이정현, “빈센트 반고호의 회화모티프를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주은, “패션 점포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과 점포 속성에 관한 연구 : 웨딩드레스 점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형숙,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성인여성복 치수설정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희춘, “성인 여성복 자켓 치수체계와 소비자의 치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유혜진, “웨딩드레스점포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오설영,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운주, 백정자, 이정란, “성인여성복 재킷의 치수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
- 정소연, “웨딩드레스 인터넷 광고 유형에 따른 광고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영숙,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신고전주의 복식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규선, “자켓원형패턴 차이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국내여성복 브랜드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현선진,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홍돈희, “서양복식에 나타난 Robe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2. 단행본 및 간행물

김수경, 「패션사전」(서울 : 디자인신문사, 1991), p.166.

김정희, 「패션에 쉽표를 찍다」, 서울 : 랜덤하우스, 2006.

김효정, 김양은, 김미경, 배은정, 「Wedding Coordination」, 서울 : 청구문화사, 2006.

나수임, 「드레스 제작기법」, 서울 : 교학연구사, 2005.

라사라교육개발원, 「패션용어사전」, 서울 : (주)라사라패션정보, 2002.

박숙현, 「패션디자인론」, 서울 : 예학사, 2004.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 수학사, 2002.

양경은, 성옥진, 「입체 재단으로 배우는 드레스 제작의 기초」, 서울 : 경춘사, 2005.

양숙향, 김나형, 김은실, 「패션 20세기」, 서울 : 교학연구사, 2006.

오선숙, 임선영, 손운경, 「웨딩드레스 제작 및 실무」, 서울 : 학술정보, 2004.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패션디자인」, 서울 : 수학사, 2006.

이경진, 「A Wedding Dress Collection」, 서울 : 유로디자인, 2006.

이승렬, 「복식도감」, 서울 : 문예마당, 1998.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 교문사, 1983.

임 순, 김은희, 「드레스 디자인 및 패턴제작」, 서울 : 예학사, 2003.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2003.

정현숙, 「20세기 패션」, 서울 : 경춘사, 2000.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패션 큰 사전」, 서울 : 교문사, 1999.

3. 외국문헌

Lansdell, Avril. *History in Camera Wedding Fashions 1960~1980*. London : Shire Publication, 1984.

Baldrige, Letitia. *Legendary Brides*. New York : Madison Press Book, 2000.

Brown, P. · Rice, J. *Ready to wear Appareal Analysis -2nd edi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98.

Yarwood, 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ustume*. New York : Bonaza Books, 1986.

Elizabeth, B. Hurlook,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 Arno Press, 1976.

Horn, Marilyn J.& Gurel, Lios M.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Delamore, Philip. *The Wedding Dress*. London : Pavilion, 2005.

4. 기타자료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http://www.ats.go.kr/>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http://sizekorea.ats.go.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http://www.gallup.co.kr/main.asp>

ABSTRACT

A Study on the Size System of Wedding Dress and the Preference Degree of Design

Kim, Yeon-Joung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st Korean wedding dress shops have one dress of various designs. The limit of demand and the cost it takes to make each dress, for it is classified as a special ceremonial dress and thus the high amount of manufacturing, makes it virtually impossible for them to own them in various sizes. Rather, they design the it so that several inches of the waist can be reduced or expanded.

This thesis was tried for the purpose of offering basic data to be help to the design development of wedding dress which customers want and the size establishment of wedding dress shops through grasping

Wedding dress tendency of enterprises and customers by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 of production of size of wedding dress shop and the design type of wedding dress that females at marriageable age prefer and examining the relevancy between the form feature of customers and the preference degree by design type of wedding dress.

As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 13, 2007 to Apr. 30 on wedding dress shops located in Seoul and to the women, at marriageable ages, who dwell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20 shops were surveyed directly by distribution and collection of questionnaires. Also 207 of 250 persons' questionnaires, excluding those with incomplete omitted answers, were chosen to be used for study. As for data analysis, SPSS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etc. were execut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

1. The method of sales in wedding dress shops, according to Korean customers' characteristics, included sales and rentals with custom fit rentals, a form of sample rentals, preferred. The fitting models of shops did not always match the age and size of bride-to-be's which became an element for the unsuitability of the dress sizes thus requiring accurate age and size of women

ready for marriage. The shops measured their customers' neck, waist, shoulder, and back lengths in the above order, similar to the basic measurements used to make the dresses which are chest, waist, back, and shoulder lengths. Hip measurements were not considered to be important, contrasting to the conventional female clothing, for most of the dresses are A line skirts, which are not restricted by hip sizes.

2. The basic sizes which act as the basics for production of dresses are as follows; chest size 86cm, waist size 66cm, and back length 38cm. Most shops created their dresses with an adjustable waist size, creating confusion in standard sizes. Thus a proposal of standardized size was made with the smallest size as W44, the middle size as W55, and the biggest size W66. W55 sets the chest size as 86cm, the average, and waist as 66cm. With W55 as the middle size, W44 and W66 adds or subtracts 6cm in the chest and 5cm in the waist. Also, to make rentals and zipper tacking easier the back tuck was proposed to be 5cm on the left and right.

3. According to the wedding dress shops, S size (small size) customers were matched well with empire, crinoline, and mermaid silhouette in respective order while L size (large size) customers were better with princess and A line silhouette, also

in respective order. In case of neckline, S size customers matched well with off the shoulder, high neckline, and tank tops while L size customers were better off with V neckline and tank top in respective order. In case of material, lace, woven silk, and velvet were good for S size customers and woven silk, lace, and silk looked good in their respective orders for L size customers. Sleeves came in the order of puff, tulip, sleeveless, and cap sleeves for S size and sleeveless and bell sleeve for the L size customers. The above sizes were determined as 44size as S size and 66 as L size, in accordance with the wedding dress sizes mentioned.

4. The preferred method of purchase was custom rentals and the price range was between 500000 to 1000000 won.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dresses was the beauty and the overall silhouette of the design. The most preferred silhouette design was the crinoline and princess while off the shoulder and tank top were the best liked neck lines. Cap and sleeveless sleeves and silk and lace were the preferred sleeves and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ers' sizes, the S size customers preferred A line and crinoline silhouettes while L size customers preferred crinoline and princess silhouettes. The most liked neckline was off the shoulder for most of the

customers with tank tops coming in second place. S size and M size customers chose sleeveless sleeves as their favorites while L size customers liked cap sleeves. Most of the customers liked silk as the material and lace as their second favorite.

This thesis has so far shown the preferred design types according to the sizes, on the basis of the standards proposed by the wedding dress shops. The shops should strive to develop and produce dresses pertaining to the properties and design elements which the actually customers prefer according to their sizes.

부 록

<부록 A> 웨딩드레스 샵 대상 설문지

설문지

선생님귀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관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수집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즉, 귀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상반신 사이즈 기본 치수, 치수 분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귀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김경희

연구자 : 김연정

연락처 : 016-437-6796

eye-k@hanmail.net

I. 다음은 귀사의 생산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사의 웨딩드레스 생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맞춤 구매 ② 대여 형식 ③ 맞춤 구매와 대여 형식 병행

<p>* 맞춤 구매 : 소비자의 사이즈와 기호에 맞게 주문제작 후 당사자가 소장 하는 형식</p> <p>* 대여 형식 :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 소비자가 선택하 여 대여한 후 다시 반납하는 형식</p>
--

<다음은 웨딩드레스 대여 형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2. 귀사의 대여 형식 중 생산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① 맞춤 대여 100% ② 샘플 대여 100% ③ 맞춤과 샘플 대여 병행

<p>* 맞춤 대여 :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 제작 형식으로 주문하고 전문 점에서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을 사입이나 주문제작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p> <p>* 샘플 대여 : 대여점에서 사입(buying)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에서 소비자가 착용을 통해 결정하는 드레스를 기본적인 가봉을 통해 대여해 주는 방식</p>
--

3. 2번 문항에서 맞춤과 샘플 대여를 병행을 하신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
도 입니까?

맞춤 대여 (%) : 샘플 대여 (%)

4. 맞춤 대역가 샘플 대역에 비해 장점은 어떠합니까?

- ①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 ② 고객의 사이즈가 다양하다.
- ③ 완벽한 피트니스를 느낄 수 있다.
- ④ 고객의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다.

5. 웨딩드레스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상반신 사이즈 기본 치수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꼭 기입바랍니다.

신체 치수 항목		기본 치수
둘레	① 가슴둘레	
	② 아래가슴둘레	
	③ 허리둘레	
	④ 목둘레	
길이	① 등길이	
	② 앞길이	
	③ 유두길이	
	④ 소매산	
너비	① 어깨너비	
	② 유두간격	
	③ 뒷폭	
	④ 앞폭	
기타	뒷중심 시접 여유 분량	

16. 상반신 기본 치수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루엣 유형 ② 네크라인 유형 ③ 소재 유형 ④ 소매 유형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7.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8.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 ① 디자인 ② 기획(MD) ③ 패턴 ④ 전체 총괄 ⑤ 기타()

19. 귀하의 경력은 몇 년 이십니까?

- ① 5~10년 ② 10~15년 ③ 15~20년 ④ 20년 이상

20. 귀사의 작년 한 해 고객의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쌍 미만 ② 100쌍 이상 ~ 200쌍 미만
③ 200쌍 이상 ~ 300쌍 미만 ④ 300쌍 이상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부록 B> 고객 대상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관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수집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김경희

연구자 : 김연정

연락처 : 016-437-6796

eye-k@hanmail.net

I. 귀하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 및 선호도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 웨딩드레스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순결성 ② 정숙성 ③ 유행성 ④ 심미성 ⑤ 기타 _____

2.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중요시 하는 디자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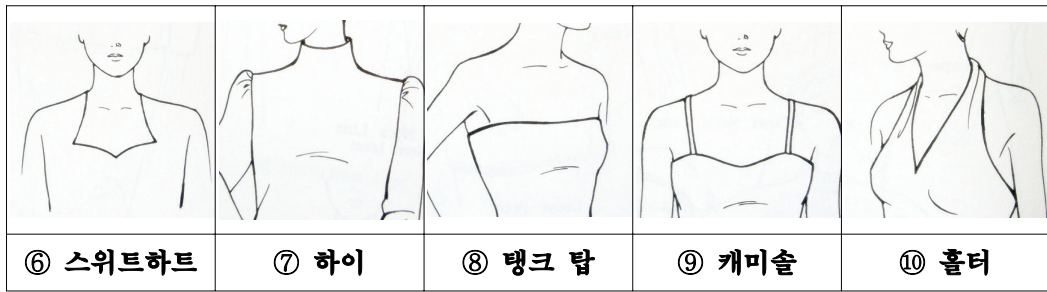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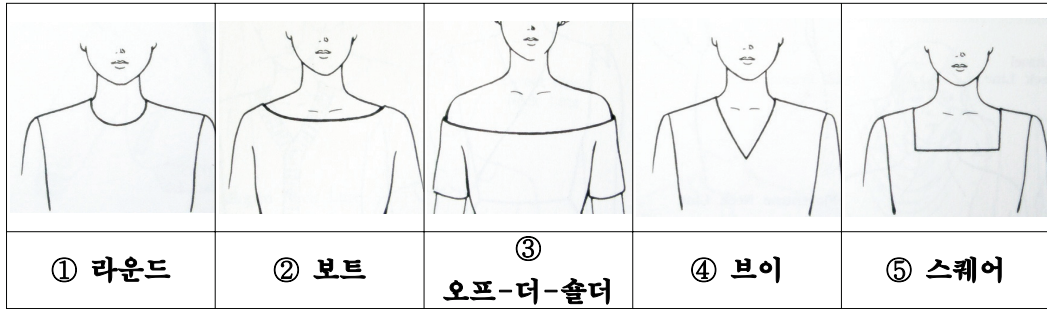
(복수응답가능)

- ① 전체적인 실루엣 유형 ② 넥라인 유형 ③ 소매 디자인 유형
 ④ 소재 ⑤ 스커트라인 유형 ⑥ 색상
 ⑦ 장신구 (베일 및 화관) ⑧ 기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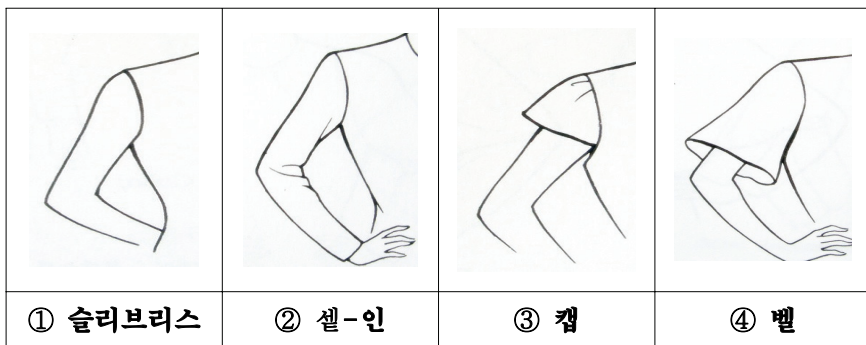
3.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입고 싶은 실루엣 유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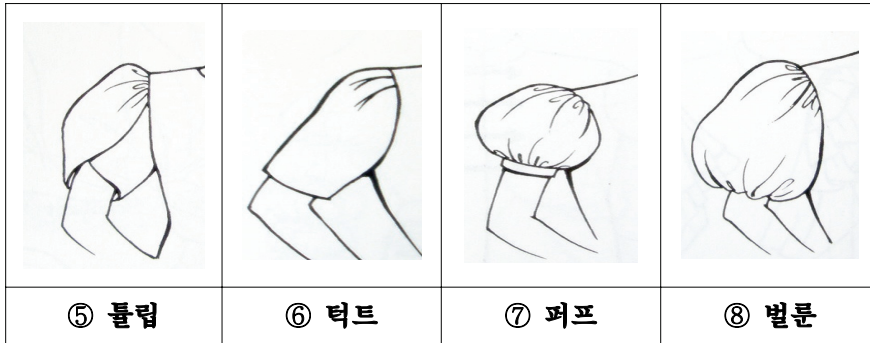
		
<p>① 프린세스</p>	<p>② 크리놀린</p>	<p>③ 머메이드</p>
		
<p>④ 버슬</p>	<p>⑤ A 라인</p>	<p>⑥ 엠파이어</p>

4.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넥라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5.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소매 디자인 유형은 무엇입니까?





6.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소재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공단 ② 노방 ③ 레이스 ④ 망사 ⑤ 벨벳 ⑥ 실크 ⑦ 기타

7. 귀하의 평상시 일반적인 성인 여성복의 상반신 사이즈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 ① 44 size ② 55 size ③ 66 size이상

8. 웨딩드레스의 이상적인 구매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맞춤 구매 ② 맞춤 대여 ③ 샘플 대여

* 맞춤 구매 : 소비자의 사이즈와 기호에 맞게 주문제작 후

당사자가 소장 하는 형식

* 맞춤 대여 :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제작을 통해 대여

* 샘플 대여 : 웨딩 샵에 있는 드레스들 중 기본적인 가봉을 통해 대여

9. 웨딩드레스의 이상적인 구매 가격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 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Ⅲ.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0.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9_____년생

11.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12.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재학) 졸업

④ 대학원(재학)졸업 이상

13. 귀하의 직업은?

① 판매직 ② 사무, 관리직 ③ 영업직 ④ 기술, 생산직

⑤ 전문직 ⑥ 공무원 ⑦ 가정주부 ⑧ 서비스직

⑨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⑩ 기타 ()

14.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배우자 및 그 위 가족 수입 포함)

① 100만원 미만 ② 100~300만원 미만 ③ 300~500만원 미만

④ 500 ~ 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15. 본인만의 월 평균 수입은? (배우자 및 그 외 가족 수입 제외)

①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100만원 미만 ④ 100~300만원 미만

⑤ 300~500만원 미만 ⑥ 500~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16. 본인 만의 한달 의복 지출비는?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 25만원 미만 ③ 25만원 ~ 40만원 미만

④ 40만원 ~ 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

17. 귀하의 거주지는? (_____시_____구)

* 끝까지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

논문을 완성하고 보니 대학원 시절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며 저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저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함으로 대해 주신 김경희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힘들 때마다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경희 교수님은 아마 제가 평생 존경하는 스승님이 되실 겁니다. 항상 자상함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부족한 저의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화진 교수님과 이명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최인려 교수님과 이승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정소연 선생님과 한보현 선생님, 서강대 영문과 친구들, 여러 선배님들과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이지선 선생님과 이해영 선생님, 친구 보경이, 윤경, 주미, 지연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위해 항상 감싸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늘 사랑으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하늘나라에 계시는 양취경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7년 7월

김 연 정 드림